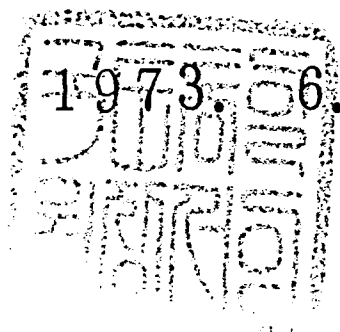


南北協商要員의 養成方案研究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述用役に 關한 最終 報
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年 5月

研究機關：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附設 行政查調 研究所

研究委員 趙 錫 俊
金 光 雄

目 次

第一章 序 論	3
第一節 研究目的	3
第二節 研究範圍	3
第三節 研究方法	7
第二章 基本前提	9
第一節 序 論	9
第二節 理念的要因	12
1. 理念이란것	12
2. 收 斂 說 (Convergence theory)	15
3. 離 散 說	17
第三節 狀況的 要因	25
1. 思想斗 心理	25
2. 對話機構의 性質	27
3. 環境的 要因	34
第三章 協商要員의 資質	37
第一節 資質斗 分野	38
1. 一般的資質	38
2. 專門的資質	43
第二節 分野斗 機關	44
第四章 協商要員의 訓練	49
第一節 對北協商的 性格斗 協商要員의 資質	49
第二節 協商要員의 訓練機關	58
第三節 協商要員과 訓練要員의 選定	61

1. 協商要員의 選定	61
2. 訓練要員의 選定	63
第四節 訓練에 必要한 倅報體制	65
第五節 訓練方法	66
1. 序	66
2. 合宿訓練	67
3. 性格變化와 訓練의 效果	67
4. 讀書와 「레포트」作成	68
5. 講議方法 (Lecture Method)	69
6. 세미나方法 (Seminar Method)	69
7. 事例方法 (Case Discussion Method)	70
8. 役割行使 (Role Playing)	71
9. 게임方法 (Game Method)	73
10. 役割行使+게임方法	73
11. In-Basket Exercise	74
12. Action Maze 方法	75
13. 感受性訓練 (Sensitivity Training) 方法	77
14. 「선디켄」方法 (Syndicate Method)	78
15. 結 論	79
第六節 教課科程	82
第五章 建 議	84

第一章 序 論

第一節 研究目的

本研究는 大韓民國이 北韓과의 關係에 있어서, 過去 數年間의 相互 接觸의 經驗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一連의 새로운 協商展開를 假想하고 이에 대한 치밀한 事前計劃의 일환으로서 우리 側의 協商要員을 養成하고 確保하는 問題를 取扱한다.

이와 같은 課題는 勿論 最近 南北韓間의 對話의 經驗과 國際情勢의 추이 등의 事情에 비추어 將次 어느 時點에 가서는 南北韓間의 對話의 領域이나 規模가 現在보다 擴張되리라는 前提에 立脚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前提가 妥當한 경우에도, 對話領域이나 規模의 擴張時期나 그 順次的 過程에 대해서는 매우 不確定한 狀態에 놓여 있는 것이 現狀이다. 따라서 本研究의 性格은 巨視的일 수 밖에 없으며, 當場 活用할 수 있는 實務的 도움이 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全體의 基本方向 乃至 政策方向을 暗示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開發에 重點을 두고, 이의 取捨選擇은 協商問題의 登場과 步調를 같이 하면서 當局者가 取捨選擇할 것으로 期待한다.

第二節 研究範圍

本研究에서는 그 基本目的에 비추어 對北韓協商에 있어서의 協商의 內容 또는 協商對象이 되는 争點은 이를 取扱하지 않는다.

協商要員의 養成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問題는 이들이 具備하여야 할 資質의 問題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런 諸資質은 協商의

性質로 부터 導出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協商의 争点是 取扱하지 않으면서도 協商의 性質은 取扱하여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一般的으로 國家間的 協商의 性質, 共產國家들의 協商態度 特히 北韓의 協商態度等은 이런 意味에서 本研究와 有關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協商要員의 定義가 問題視 될 수 있다. 例를 들어 代表, 補助員, 后方指揮要員, 記者 等の 全部가 協商要員으로 간주되고, 本研究의 對象으로 되는가의 問題가 있다. 심지어 對北韓關係의 協商은 特히 全國民의 支援의 背景下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全國民을 廣義의 協商要員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意見도 있을 수 있다. 特히 北韓의 協商戰略에 있어서의 指針 가운데 重要的 것은 協商「테이블」自体에 意義를 賦與하기 보다, 이를 手段으로 하여 大衆속에 파고 든다는 方式을 採하고 있음으로 協商「테이블」또는 協商自体를 宣傳道具로 使用하여 大衆「이미지」改造에 目的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이것은 特히 公開의 協商에서 더욱 그렇다.) 위와 같이 全國民을 協商要員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体系的인 教育을 한다는 것은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本研究에 있어서는 協商要員을 이와 같이 廣義로 解釋하지 않고, 協商争点의 解決 및 協商過程과 直接的으로 關聯이 있는 代表, 各種 補助職員 및 后方的 有關機關(例, 統一院, 中央情報部, 會談議題에 關聯된 機關)의 職員들을 意味하는 것으로 決定한다. 그 理由는 이렇게 함으로서 좀더 具體적인 政策案을 作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言及한바와 같이 새로운 協商이 언제 展開될 것인가에 關한 時期性的인 問題는 現段階로서는 未定の 狀態下에 놓여 있다.

反面에 協商領域의 問題와 그의 順次性的 問題에 있어서는 原初的인 基準이 提示되어 있다. 卽 協商領域에 있어서 政治, 經濟 (共同漁撈, 觀光共同開發 包含), 社會, 文化 (學術, 體育, 記者交流 包含, 技術關係 包含), 外交, 軍事 등의 分野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南北調節委員會의 會議事項과 이에 關聯된 一連의 事實에 의하여 明白하다고 생각한다.

또 順次性에 있어서도 大韓民國의 立場은 政治性이 적고, 따라서 比較的 容易한 問題부터 풀어 가자는 것이 非公式的으로나마 是認된 見解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本研究에 있어서도 協商要員養成의 領域을 위와 같이 分類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各領域別로 要員에게 要求되는 資質이 무엇인가를 究明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協商領域의 区分을 통하여 우리 政府內의 有關係機關을 찾아내고, 이들이 協商要員의 養成에 重要的 責任을 分擔하는 部署들임을 暗示하고 나아가서 이들간의 構造的 協調方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各協商領域間的 順次性的 問題는 本研究의 內容을 위해서 重要的 意義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本序論에서 指摘하여 두어야 하는 것은 上記한 쉬운 問題부터 解決하여 간다는 戰略이 協商要員의 養成計劃을 위하여는 어떤 意味를 갖는가 하는 問題이다.

本研究 報告書가 導出하는 諸結論은 어디까지나 試驗的이며 暫定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政策立案을 위해서 考慮에 넣은 諸變數는 狀況의 變動과 함께 恒常 可變的인 存在에 지나지 않는다. 또 考慮된 變數 以外的 많은 他變數가 더 重要하다는 立場을 扞할 수도 있다. 그리고 考慮된 變數自体들에 대한 그 作用程度의 把握과 變數間的 相互作用關係 및 影響에 대한 判斷案

은 高度의 質的인 判斷이다. 따라서 보는 사람의 見解差에 따라서는 다른 結論을 導出할 수도 있다.

本研究의 이와 같은 性格 및 本問題自體의 이와 같은 性格에 立脚하여 우리는 對北協商要員의 어떤 養成方案이던지 그 效果面에서 檢討할 때에 暫定的인 價值밖에 갖지 못한다고 判斷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쉬운 問題부터 解決하여 간다」는 戰略은 이런 暫定的案의 妥當性을 比較的 危險負擔이 적은 問題에서 부터 檢証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해 주는 것이며, 따라서 危險負擔이 더 큰 問題에 當面했을 때에 더욱 훌륭한 協商要員을 갖고 臨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우리는 위와 같은 順次性配列의 戰略에 積極 贊同하는 바이다.

本研究의 時間範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立場을 取하였다. 即 南北協商의 南北韓雙方의 主體의 事情과 國際情勢의 추이에 따라 直接的인 影響을 받음으로 現段階로서 새로운 領域에 關한 協商開始 時点を 確實히 豫見할 수 없음으로 短期的 眼目으로 本研究을 進行시킬 수 없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本研究에 있어서는 적어도 約10年程度의 將來의 效果를 豫想하면서 研究을 進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研究結果의 利用者의 立場에서 보면 上記 諸事情의 變化로 因하여 새로운 協商이 緊迫하게 된 때에는 이 研究報告書의 一部가 參考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短期的 效果를 위한 諸措置를 위해서는 좀 더 具體的인 새로운 種類의 研究가 別途로 必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場所的으로는 對北韓協商이 南北調節委員會나 南北赤十字會談의 經

우와 같이 韓半島內에 限定될 것이라고 볼 必要는 없다고 생각한다. 換言하면 外國에서 南北韓間에 直接的으로 또는 第三國을 中매者로 하여 間接적으로 進行되는 狀況을 豫想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히려 어떤 意味에서는 이런 種類의 協商이 事態의 變化 如何에 따라서는 매우 빈번히 利用될런 지도 모른다.

따라서 本研究의 對象으로서 外交官 또는 在外公務員들에게 對北韓 協商要員으로서의 資質을 注入하는 問題도 包含시킬려고 한다.

本研究에 있어서는 要員養成事業이 隨伴할 國內政治의 影響, 經濟的 影響, 社會的 影響中에서 否定的 또는 費用的인 것은 적다고 간주하여 이런 諸局面은 取扱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本研究은 主로 이 事業의 行政的 側面만을 그 研究對象으로 하기로 한다. 여기서 行政的 側面이란 本事業의 담당機關, 推進方法, 訓練內容, 訓練方法, 訓練要員, 被訓練者의 選定, 訓練政策의 立案等を 말한다.

특히 이 중에서 訓練方法에 있어서는 既往에 行政이나 經營에 있어서 成人 實務者들을 對象으로 하여 行한 諸訓練方法을 檢討하여 對北協商要員의 訓練에 가장 適切한 訓練方法을 모색하기로 한다.

第三節 研究方法

本研究에서 採択한 研究方法은 다음과 같다. 協商에 關한 一般理論, 對共產國, 對北韓 協商의 性格에 關한 關係資料, 行政學이나 經營學에서의 政策決定 및 訓練方法에 關한 著書와 資料等を 檢討하는 것이 主된 方法이었다.

이에 附隨하여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非公開 「세미나」에서 討議된 「아이디어」들을 發展시키는 方法을 첨가 하였다.

따라서 本研究에서 現地調査나 統計的, 量的調査는 除外되었다.
서술의 順序는 第一章 序論에 이어 第二章에서 協商의 基本前提
를 取扱하고, 第三章에서 協商要員의 資質問題를 取扱하였다. 그리
고 以上은 本報告書의 核心部分이라 할 수 있는 第四章 協商
要員의 訓練으로 連結된다. 終章인 第五章에서는 建議事項만을 取
扱하였다.

第二章 基本前提

第一節 序 論

協商要員을 양성함에 있어서 당연히 생각해야 할 것은 協商의 基本的인 性格과 결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基本的인 性格의 側面은 첫째 協商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와 같은 根本的인 의문도 包含되어야 하겠지만 이 경우 協商要員을 養成하기 위한 方案을 摸索한다는 것은 물론 協商의 必要性 내지는 有意性을 前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協商 自体에 대한 懷疑를 제기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놓고 懷疑를 느끼지 않아야 할 部面에 대해 懷疑를 論해야 하는 것은 協商의 終局目的과 協商의 過程에 있어서 予測不可能이라고 할 강한 性格이 内在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야 옳을 것 같다.

둘째는 이러한 協商의 必要性和 当然性이 전제로 되는 경우 과연 어디까지 協商이 可能해 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이야기는 예컨대 經濟的인 側面에서는 협상이 可能할 것이고, 또 人道的인 側面에서도 물론 可能할 것이며 반면에 軍事的이나 政治的인 側面에서는 협상이 不可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性格의 協商 上限線을 論議하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와같은 分野別 論議는 協商의 成敗를 위해서 必要한 것이지만 여기서 이러한 問題를 具體的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일이며 또한 本稿의 의도에도 어긋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南北韓의 協商可能性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의 問題를 兩側의 基本態度를 決定하며 根本的인 目的과 결부되기도 하는 理念(ideology)의 側面에서

그 限界性을 檢討하겠다는 것이다.

理念의 問題를 論議한다는 것은 곧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關係를 거론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民主主義와 共產主義가 서로 相異한 理念으로서 어느 程度 接近이 可能한가의 問題이기도 하다. 接近이 어느 程度 可能하여 그것이 아주 하나로 一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모일수는 없고 가까워는 지되 극복할 수 없는 壁이 가로 놓일 것이냐의 問題이다. 이것이 이른바 두 相異한 理念의 收斂 (Convergence) 과 離散 (divergence) 이다.

그러니까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와 協商은 그 두 理念이 어느 程度 가까워 질 수 있는나 限度內에서 可能한 것이지 그것이 無限定하게 가까워져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반드시 옳은 態度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러한 理由로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收斂은 數學 및 物理學的의 意味이다. 數學에서는 收斂의 뜻을 하나의 變數가 어느 有限確立의 값에 無限히 가까운 값을 취하는 것으로 理解하고, 物理學에서는 光線의 束이 한점에 모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兩者에 약간의 差異가 認定되는 것으로 예컨대 만일 우리가 여기서 使用하는 收斂의 意味가 數學的인 것이라면 完全一致를 要求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에서 어느 程度 여유를 가지나, 반면에 物理學的인 意味라면 좀 더 嚴格해 진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社會現象, 특히 精神的 局面인 이데올로기에서 自然現象인 것을 期待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 語義에 嚴格하게 따를 必要는 없을 것 같다. 어쨌든 收斂의 意味도 그 立場에 따라 다르다는 것만 알면 足할 것 같다.

요컨대 南北韓協商의 限界는 바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가 收斂
혹은 離散할 수 있는 程度와 一致되며, 協商要員이 養成도 이러
한 맥락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곧 南北韓
協商要員을 養成함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基本前提이다.

아래에 두 理念의 收斂과 離散에 관한 諸主張을 理念的 要因의
重要性을 勘案하여 소개하고 또한 지금까지의 經驗등을 통해서 우
리가 알고 있는 南北間의 狀況의 要因 역시 協商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좋은 敎示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를 思想과 心
理, 그리고 對話機構의 性格을 통해서 分析해 보려한다. 國際的·
環境的인 與件의 變化도 물론 加味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한가지 밝힐 것은 南北協商要員을 養成한다는 것은 地域
的으로 限定된 意味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南北韓의 協商이 韓半島內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國外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라는 前提에서 그 協商要員의 養
成을 論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協商要員의 養成에 必要
한 國內의 現存하는 連繫機關으로 外交研究院을 想定하는 所以가 여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뒤에서도 詳論하겠지만 協商家를 外
交官과 같은 次元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논거가 正當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協商要員의 養成은 모든 것을 勘案할 때 短
期的 (Short term) 인 것 보다는 長期的 (long term) 프렌으로 생
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協商要員의 養成을 위한 새로
운 機關이 設立되어야 할 必要性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第二節 理念的 要因

1. 理念이란 것

顯忠詞와 萬景臺의 觀光은 南北對話와 協商의 性格을 말해주는 하나의 象徴的 表現이라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27年이라는 긴 세월동안 固形화된 두 集團은 北의 경우 1人偶像의 策略아래 金日成으로 통하는 王道를 強制的으로 構築한 反面, 南의 경우 亂世에 救國濟民을 위해 奉獻한 歷史上的 人物을 追慕함으로써 國民意識의 統合的 效果를 試圖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民主와 共產의 人物中心的 表現狀態의 相異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비단 政治的 人物中心的 側面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文化, 藝術世界에서, 社會制度와 行態에서, 그 日常生活에서 南北의 判異한 樣相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오랜期間동안의 反共教育을 통해서, 그리고 몇차례의 南北赤十字會談과 調節委員會의 會議를 통해서 確認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確認過程은 하나의 現實로서 그동안 과장된 것을 現實化시켰고,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 效果는 어느 면에서 커다란 失望도 주었지만, 여하튼 共產主義라는 하나의 理念에 대하여 國民이 經驗한 感情移入 (empathy)은 民主信奉을 위해서 놀라운 效果를 보았다고 해도 좋다.

이러한 断片的 象象에 대해서 느끼는 現實的 感覺에는 理論的으로 어떠한 解狀을 붙일 수 있겠는가. 두 對話의 失望과 希望의인 論爭을 理論的 側面에서 論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지적인 收斂說과 離散說의 立場이 된다.

두 側面을 論하기에 앞서 理念이란 무엇인가 부터 규명하기로 한다. 理念은

첫째 難澀한 개념이다.

둘째 유토피아의이어서 空想性을 免치 못한다.

셋째 修辭學的 言語의 構成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 現實美化의 性向을 免치 못한다.

넷째 반면 合理的일 수도 있다.

다섯째 Marx에 있어서는 이른바 社會의 下部構造에 대한 上部構造의 全體를 指稱한다.

여섯째 自然에 대해서 품고 있는 어느 程度 統系化되고 一貫性있는 觀念形態로서 感情이나 斷片的 判斷과 다르다.

일곱째 價值判斷과 未來에의 希望을 不可欠의 要素로 삼는다는 뜻에서 自然科學과 區別된다.

여덟째 集團에 의해서 表象된다는 뜻에서 抽象化된 論理的 命題와 區別된다.

위와 같은 意味를 지니고 있는 理念이라고 하는 것은 그 機能으로 (1) 價值와 未來社會의 유토피아像을 提示함으로써 技術集團과 階級間의 連帶感을 強化시켜 주고, (2) 構成員에게 使命感과 行動의 에너지를 賦與하여 共同社會를 組織化하는 機能을 가지며, (3)心理적으로 保護的인 機能을 行한다. 즉 人間은 어릴때 부터 孤獨에 대한 恐怖를 無意識중에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Separation anxiety에 강한 belief-system을 주입해 줌으로써 격리 不安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준다. 예컨대 北韓의 경우 1日 탁아소나 週탁아소에서 부모로 부터 떨어져 격리불안을 느끼는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 金日成首領이라는 새로운 믿

은 体系를 注入함으로써 安心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특히 오늘에 이르러 理念은 하나의 說得的 機能을 行使한다. 즉 理念이란 원래가 한 社會를 理解하는 認識方法으로 活用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自己利益에 부합되는 政治方針에 同조하는 多數를 獲得하기 위하여 說得方法으로 전락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理念은 近代社會에 있어서 政治權力을 獲得하기 위한 不可欠의 무기로 되어 과거의 宗教나 慣習이 遂行해 왔던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그런데 흔히 理念의 問題를 論하는 學者들 예를들어 Ceifford Geertz, Andrew Haeker, L.H.Garstin, Raymmal Aron, Talcott parsons, Edward Shils, Daniel Bell, Seymour Lipset, Karl Mannheim, Goseph Lapalcombara, P.Sorokin 등 많은 學者들은 理念이라는 개념에서 부터 異見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分析의 角度를 달리하고, 또한 더 重要的 것은 그들의 分析를 經驗의 世界에 投影할 때 左右가 하나의 國家에서 共存하는 日本, 伊太利, 콜롬비아, 칠레, 挪威 등지의 경우를 想定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 論點은 우리의 南北韓協商의 理念的 要因에 대하여 意味 깊은 示唆을 던져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우 첫째 하나의 政體속에서 共存하는 두 理念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둘째 비록 文化가 다르고 政體도 다른 두 民族間의 理念을 論하며 그 接近 可能性을 타진하는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같은 言語를 쓰면서도 다른 思考定向때문에 보다 더 난이한 協商 街道가 놓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에는 충분한 同感이 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學者들간에 共通된 點은 Parsons의 말처럼

“科学과 理念은 兩立할 수 없는 概念”이라든지, 理念은 하나의 從屬現象으로 그 浮沈은 環境的 要因, 특히 經濟的인 것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貧富나 生活樣相의 格差가 커지면 理念의 문제가 고개를 들고, 反面에 그 格差가 줄어들면 理念의 問題는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安定되고 豊饒한 民主社會에서는 階級鬭爭을 위한 理念의 拳論은 必要없게 될 것이다.

또한 그 過程에서 兩쪽의 苦痛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教育의 힘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Lipset도 지적했듯이 社會의 變動에 따라 理念의 問題가 쇄잔해 진다는 것은 결코 “이데올로기의 終末”을 告한다 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思考方式이나 社會決定要因들이 變化하면 究竟 理念의 差異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經濟要因이 理念의 問題를 풀 수 있는 現저한 要因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經濟라는 物質과 理念이라는 精神의 差異는 물과 기름의 관계인지도 모를 일이다. 社會保障의 確立이 先進國에서도 어려운 課題이며 또 樹立되어도 階級分離와 葛藤의 問題가 解決될 것인가를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의 收斂說과 離散說을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論議해 보자

2. 收斂說 (Convergence theory)

民主主義와 共產主義가 서로 接近하여 收斂의 狀態가 可能하다는 것은 주로 經濟學者, 社會學者, 教育學者, 그리고 政治學者들에 의해서 拳論되었다.

이 用語의 發說者라고 할 수 있는 美國의 經濟學者 Walter S. Buckingham은 1958년에 낸 그의 著書 Theoretical

Economic System에서 收斂說의 論旨를 펴고 있다. 이보다 훨씬 전에도 이러한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世紀에 이미 불란서의 歷史家요, 政治家인 Alexis de Tocqueville은 美國과 蘇聯의 接近을 主張했다. 최근에 이르러 Tinbergen, Aron, Sorokin 같은 學者들이 주로 主張하고 그 밖에 이러한 立場에 서는 사람들은 앞의 理念에 관한 概括的 說明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收斂說의 立場에 서는 이러한 諸學者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개 經濟的인 側面에서 大衆消費社會가 實現되며 나아가서 福祉國家가 이룩되고 또 되어야 한다고 믿는데서 출발한다. 즉 理念이 다른 두 社會는 하나의 同形인 產業社會로 향해서 接近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產業社會는 大衆이 理念의 問題에 깊이 관여치 아니하고 非이 대을로기化하는 社會이며, 經營者의 權利가 消費者의 權利보다 尊重되고, technocrats가 支配하는 社會를 뜻한다. 이 밖에도 보다 훌륭한 體制를 民主主義도 共產主義도 아니라는 前提下에 보다 좋은 體制를 形成해야 한다고 한다.

科學·技術의 革命的 進展을 믿는 이러한 立場은 Marx가 주장하는 이론바 社會形態의 變化가 必然的인 對立法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各己 相異なる 要素는 서로 補完하는 관계에서 接近의 偏向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收斂說은 主張하는 諸論者들은 資本主義나 共產主義가 人間의 참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人類歷史의 終末을 피하기 위하여 두 理念은 接近하여 하나의 統合社會 (integral society)를 이룩해야 할 것이며 또 그러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이들이 主張하는 바는 人間의 참다운 創

造的인 삶을 保障해 주는 理想社会가 建設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理想社会는 곧 生活樣式에 있어서는 資本主義에 따르고 整然한 秩序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共產主義에 依存하는 절충식의 統合社会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收斂說의 以上과 같은 여러 論點을 우리는 충분히 理解하며 또 그러기를 希求한다. 또한 이 地球上에서 여러 集團의 경우에 資本主義的 生活樣式과 共產主義的 秩序가 加味되어 確立된 体制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理想이 그 規模가 擴大될 때 어느 정도 實現可能性이 있으며, 또한 그 存続度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離散說의 立場이 보다 더 現實說明力이 큰 것이라고 하는 理由이다. 收斂說의 不適合性이라든가 實現困難性에 대하여는 離散說을 說明하는 가운데 더 明白해 지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줄여서 收斂說의 立場은 두 理念을 組織的 体系的으로 分析한 事實에 根拠하는 것이 아니고 人類의 장래를 위해서 戰爭을 防止하기 위하여 主張하지 않으면 안되는 希望의 手段으로 政治的 行動의 可能 領域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데 충분한 同情이 느껴진다고 하겠다.

3. 離散說

離散說의 立場은 收斂說과 反對의 見解를 代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그 內容 역시 收斂說의 希望的인 見解에 부정적인 根拠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離散說의 見解를 주로 産業社会에 있어서 富의 平等 즉 生産의 平等이나 分配의 平等을 이룩하기 힘들다는 立場으로 福祉社会 實現이 困難하다는

것을 重要한 争点으로 삼는다.

福祉社會의 建設은 甚히 安易하게 생각할 수 있는 問題는 아니라고 본다. 最低生活水準의 保障이나 完全雇傭을 포방하는 混合體制의 경우, 그리고 人間의 참다운 創造的 삶을 保障해 주고자 이상으로 삼는 統合社會등 그 모두가 福祉社會의 理想과 一致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福祉社會의 建設이 어려운 것만큼 收斂說의 立場은 고난의 도정을 걸을 수 밖에 없다.

福祉社會의 思想的 起元은 古代 프라토나 旧約聖書에서 不平等을 是正하기 위하여 私有財産을 거부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프라토는 그의 「共和國」에서 理想國家觀을 論하면서 “統治階級은 私有財産을 갖지 않고 一切를 共同으로 나누어 갖는다”고 표현되고 있다. 또한 旧約聖書에도 勞動者나 兒女者와 같은 弱者의 保護를 強調하며 私有의 개념을 拒否하고 있다. 예수가 말하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너희가족과 財産을 먼저 버리라”고 한 것은 私有의 개념을 否認한 말로 認定할 수 있다.

이 밖에도 財産의 共有는 물론 分業의 共有를 주장하는 萬民平等思想에서 福祉의 이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토마스 모아의 「유토피아」나 토마스 캄파넬라의 「太陽의 都市」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모아의 경우는 프라토의 思想보다 進一步한 것으로서 社會階級에 다른 分業을 認定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같이 勞動하고 공부하는 萬民平等社會를 主張했다.

또한 그는 돈은 모든 罪惡의 根源이라고 主張한다. 캄파넬라의 경우는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知識에 대하여 言及하여 知識이 權力을 支配하는 社會를 전제하고 知識의 差別을 제외하면 아무런 階級의 差別도 없는 平等社會가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와같이 福祉社會의 思想的 背景은 財産의 共有, 知識의 共有, 分業의 公有 및 權力의 共有를 통한 社會的 不平等의 제거라는 多분히 社會主義的 思想에 立脚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首肯할 수가 있다. 그러나 福祉社會의 개념이나 實體가 西歐社會에서 社會主義에 기초해서 展開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産業資本主義社會의 理想으로서 民主主義 土台위에 構築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始源과 結果에서의 相異를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하튼 그 展開過程에서의 變質은 차지하고라도 분명한 것은 福祉社會의 개념이 合理的 個人主義에 立脚한 資本主義요, 民主主義에서 導出됐다는 事實이다. 이를 認定할 때 共產主義의 福祉社會的 性向을 認定한다 해도 과연 어디까지 달아야 할지는 또 다른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資本主義의 確立은 經濟體制의 變革을 趨來케 한 것은 물론이지만 社會的으로는 身分制度의 殘滓를 消除하고 자유롭고 平等한 個人의 社會를 이룩하는 것이었고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의 理想을 具現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經濟的으로 同一한 水準에서 出發하지 않았던 緣由로 惹起된 私有財産能力의 不平等과 이와 관련되어 深化된 自由競爭에서의 누증된 不公平은 政治的 民主主義의 具現에 一抹의 懷疑와 自責을 불러 일으켰고 따라서 國家의 機能에 대한 再評價와 期待值의 變更을 不可避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根本的으로 景氣變動의 下廻期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이라는가, 勞使間의 극심한 對立 또는 企業家의 橫暴로 부터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自由放任主義的 經濟體制를 變革시키기 위한 國家의 積極的 介入이 必要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資本主義의 實際를 통해서 나타난 經濟的 害惡을 払拭 시키기 위하여는 政治的 責任 내지는 機能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社會主義的 計劃과 統制와 民主主義的 自由가 調和된 두 理念의 收斂的 경지를 想定하는 福祉國家 指向의 理念과 思想的 背景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精神과 物質 兩面에서의 豐饒를 希求하는 人間의 本然的 欲求를 充足시켜 주기 위한 程度나 量은 一定할 수가 없다.

그래서 人間다운 生活의 보장은 그 最低에서 부터 歷史狀況에 따라 그 程度를 달리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래도 最低生活의 保障을 確保해 주는 福祉國家의 意味가 一般的으로 받아들여지는 福祉概念의 中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英國의 社會主義나 民衆主義 그리고 社會福音主義에서 緣由된 이른바 「肯定的 自由」 즉 窮乏과 無知로 부터의 解放과 自由를 國家가 國民에게 保障한다는 精神에 立脚해서 첫째 社會는 그 모든 構成員에 대하여 적당한 生活水準을 保障할 義務가 있으며, 둘째 社會는 그 成員의 能力에 따라서 有用하고 生産的인 일을 부여할 義務가 있다는 것을 主要原理로 삼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經濟的 生活向上을 위해서 國家가 經濟와 社會 各分野에 直接 干与하는 態度를 취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集團主義的 社會經濟體制에서의 福祉政策이 아닌 個人主義的 自由民主體制에서의 福祉政策이어야 한다.

以上の 몇 가지 論議를 根拠로 해서 우리에게 明白해진 것은 두 理念의 結合이 하나의 理想社會 - 그것이 結合社會이든, 混合體制이든 - 를 志向하는 것으로 그 社會는 構成員의 最低生活을 保障하여 人間다운 生活을 영위케 해주는 福祉의 哲學이 배태되어

있는 社會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個人主義的 自由民主體制에서의 福祉라는 개념이 우선한다.

여기에 共產社會에서의 集團의 概念과 우선 相似된다.

그것은 一般的 意味로서의 福祉 내지는 福祉政策의 概念은 國家와 市民間의 關係로 理解되지만 國家의 役割이 多樣해짐에 따라서 일일이 個人 各層과의 直接的인 關係를 維持하기가 困難할 때도 자주 생긴다.

그러므로 一種의 機能的 分權過程을 거쳐 國家가 企業에게 社會保障的 責任을 委任하여 이른바 「社會福祉制度」가 福祉政策의 또 다른 構造的 概念을 形成하게 된다. 요컨대 자꾸만 全體國家의 概念에서 벗어나 社會·個人의 概念으로 分化해 나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共產思想과의 유리는 더욱더 커진다는 意味가 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福祉社會의 具現을 위해서는 社會構成員의 責任이 隨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福祉社會를 政府가 市民에게 一方的으로 施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社會發展政策을 細分化하는 경우에 그 基礎變數로서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市民의 倫理意識은 社會的 認識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重要的 意味를 가지는 것이므로 한 社會의 福祉를 위한 成敗는 바로 意識水準에서의 自立的이고 自律的인 獨立精神과 社會的 儉朴精神을 涵養하여 協同的 創造的 努力을 기울이는데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福祉社會 具現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곧 收斂說的 立場의 希求에 대한 暗影이며, 동시에 離散說의 立場을 정당화 시켜주는 根拠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아래에 좀 더 具體的인 그리고 經濟的인 側面에서 離產說의 論拠를 들어 보자

離散說은 우선 市場經濟體制와 統制經濟體制는 本質적으로 接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市場經濟體制에 어느 정도 計劃性이 加味된다 해도 그것이 資本主義의 經濟秩序를 破壞하지 않는 한 그 經濟體制는 變更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經濟를 규제할 決定的인 手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經濟發展같은 것을 計劃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計劃經濟와 같은 것이 아니다.

또한 收斂說의 立場은 生産에서 技術만을 重要視하지 生産을 위한 組織과 分配를 同한시 하기 때문에 分配方式에 있어서 두 理念은 接近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共產主義의 立場에서 주장하기는 새 社會에서 technocrats가 支配하고 勞動階級이 革命主体 勢力이 될 수 없다는 것은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資本主義쪽의 見解에 따르면 政治權力和 結託된 独占資本家를 崩壞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独占資本家の 支配를 벗어날 수 없다는데 쉽게 수긍이 간다.

어쨌든 歷史나 社會變遷의 어떠한 法則을 믿든 간에 위에 밝힌 諸論點은 民主主義와 共產主義가 和合할 수 없다는 것을 한층 더 強調한 面面이며, 이러한 점이 앞서 지적한 福祉社會 顯現의 難點과 결부될 때 그 深度는 더 깊어진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經濟的인 角度에서 檢討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두 理念은 收斂의 可能性보다는 離散의 可能性이 더 짙다고 하는 사실을 銘心하고 協商의 限界點으로 認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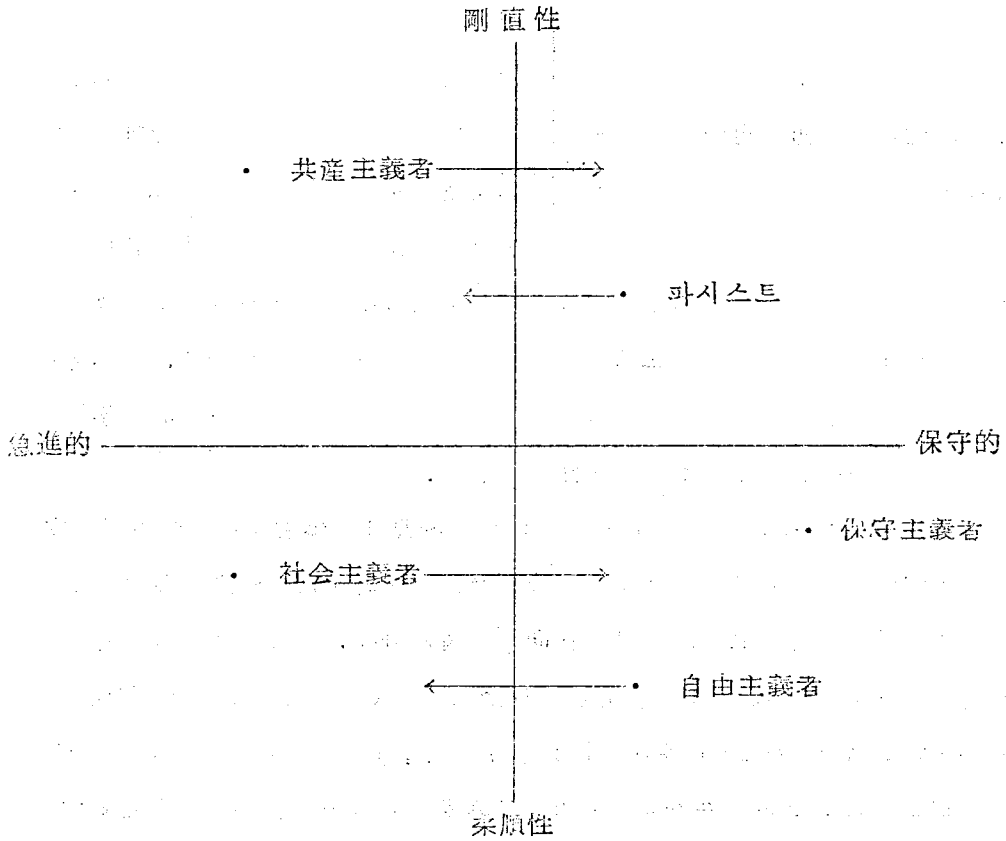
이러한 事情은 비단 經濟的인 側面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도대체 無產階級이 主人이 되기 위한 鬪爭의 財產의 共有라고 하는 側面 이외에도 權力欲에 대하여 人間本性이 더 執着한다는 點에 慚倒한다면, 理念이라는 假飾을 버리고

쉽게 和合할 수는 없는 問題다. 다시 말해서 理念은 權力 쟁취를 위한 手段으로 輾落하고 말았기 때문에 쉽사리 收斂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權力欲과 直結되는 것은 아니지만 心理的인 態度面에서도 亦是 두 理念의 接近不可論을 主張하는 立場을 소개한다. 지금까지 南北關係를 說明하는 가운데 거개가 波及効果를 期待하는 機能主義 理論과 動態的인 立場에서 得失 내지는 協商의 保存이나 破棄를 摸索하는 게임理論에 依存해 왔다. 南北協商을 希冀적으로 생각하고 타개해 보려는 立場으로 훌륭한 兪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協商을 우려하고 그 限界性을 認識하는 心理學的 離産說에 와서는 무산될 可能性이 甚다.

Hans J. Eysenck가 主張하는 假說 模型에 依存하여 이러한 立場을 代辨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그는 態度·信念體系 意見 및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理念의 轉向을 圖示한다. X軸을 社會的 態度를 생각하고 40개에 달하는 社會的 態度 變數를 要因分析 (factor analysis) 하여 「保守와 急進」으로 나누었다. 한편 Willian James의 주장에 따라 Y軸을 人間의 氣質로 想定하여 한쪽을 「柔順한 마음」, 다른 한 쪽을 「剛直한 마음」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예컨대 共產主義者는 社會的 態度面에서 急進의이며 人間의 氣質面에서 剛直한 마음을 지닌다. 반면 自由主義者는 社會的 態度面에서 保守的이며 人間의 氣質面에서 柔順한 마음을 지닌다. 다른 몇몇 理念과 더불어 주장된 그의 검증되기 은 모형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圖 - 1 自由主義와 共產主義의 社會 및 人間的 座標



물론 이 座標上의 位置는 假說的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示唆的인 것은 Eysenck의 주장대로 (1) 원래 人間의 人格과 性格은 오랜기간에 걸쳐서 훈육의 結果로 형성된 것이므로 그 전환이 困難 또는 不可能한 점이 있지만 (2) 急進과 保守의 兩極은 비교적 轉換이 容易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共產主義와 파시즘, 또는 社會主義, 自由主義 및 保守主義간의 轉向은 容易해도 自由主義 間に 轉換은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만일 이와 같은 心理的 主張이 現實性을 지닌다면 心理的 側面에서 離産說은 說得力을 가진다고 하겠다.

끝으로 教育的인 側面에서 두 理念의 差이를 一瞥하면, 둘이 똑같이 全人教育을 理想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는 共通性을 갖지만 民主主義의 경우에는 目標開放的인 반면에 共產主義에 있어서는 Marx-Lenin主義의 이데올로기를 絶대적要件으로 要求하기 때문에 兩者가 教育의 目標面에서 收斂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北韓의 경우는 共產主義 가운데에도 끝수正統派라고 할 수 있으며 Marx-Lenin의 敎示를 유리한 方向으로 援用한데다가 Stalin의 手法을 活用한 敎條劃一主義的 共產思想에 젖어 있기 때문에 비단 教育的 側面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分野에 걸쳐서 閉鎖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面은 다음 節에서 더 明白해 진다.

第三節 狀況的 要因

i. 思想과 心理

共產主義思想의 本質부터 論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北韓의 共產主義가 지니고 있는 特性을 몇가지 列挙함으로써 協商의 基本前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完全統制와 完全動員을 표방하는 「조선노동당」은 實質的인 統治體制로 北韓의 모든 分野를 強力히 支配하고 있으며 初期에 스탈린主義를 成功的으로 도입했다. 보잘것 없었던 北韓의 共產主義勢力은 勞動黨을 權力基盤으로 하여 급속히 膨脹하였으며 6.25 事變을 계기로 소련의 支配로부터 점차 脫皮하여 國內 政治的 統制를 強化할 수 있었다.

全日成은 「레닌」의 “革命的 理論이 없으면 革命的 實踐이

없다”는 革命思想에 基礎하면서 「스탈린」의 理論이 없는 實踐은 盲目的 實踐이며 實踐이 없는 理論은 空洞的 理論”이라는 主義를 받아들여 理論과 實踐의 不可分性を 理解하고 거기에서 「스탈린」手法을 伝受하여 가혹한 肅清作業으로 自身の 地位를 公고히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國土分断이라는 環境的 條件은 自身の 政治權力을 연장시킴에 있어서 훌륭한 理論的 基盤이 되었다.

그러나 政治權力의 正當성이 欠如된 金日成의 共產主義는 「맑스·레닌」主義와는 다른 獨創性을 主張하는 唯一思想으로 變貌되었으며 神的 存在로 君臨하였다.

獨創的이라고 主張하는 北의 共產主義도 分明히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目的이 종래의 모든 社會秩序의 暴力的 破壞에 의해서만 도달될 수 있다.”고 하는 1848年의 共產黨宣言의 暴力 革命을 信奉하면서 또 한편 “美國; 英國 그리고 아마도 네델란드에서 처럼 프로레타리아트가 平和的 方法으로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1872年의 암스텔담연설의 平和的 方法을 援用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암스텔담연설이 示唆하는 戰術의 彈力性을 구사하지 못했는데 北韓 共產思想의 硬直性이 있으며 原始性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지나 赤十字會談 第2次서울會議에서 行한 몇 諮門委員의 態度와 演說內容에서 쉽게 感知된다고 하겠다.

그들에게는 또한 生活樣式이나 象徴體系에 의하여 一定한 系列의 段階를 밟아서 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假想的 思考와 攻擊의 欲求」가 綜合되고 充溢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共產主義의 假想的 思考는 心理學에서 말하는 이른바 實相의 制約

을 받지 않고 想像이나 倒着에 의하여 얼마든지 自由로운 形態로 經驗內容을 再構成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現實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思考를 進行시킬 必要가 없어서 統一이라는 目標에 到達하기 위하여 思考하는 過程을 現實的 사물과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檢討하지 않는다. 또한 目標에 到達하는 方法이 架空的이어서 目標(共産化)를 가로막는 障礙(民主主義)에 착각을 일으키거나 輕視하며 또한 飛躍한다.

그들의 攻擊的 欲求是 Prescott이 主張하는 自我的 欲求 가운데 現實과 調和를 피하려는 것과 다르며, Hagen의 그것과 달리 強한 共産主義의 基本 자세로 戰略을 낚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假想的 思考와 攻擊的 欲求가 합쳐져서 定型화된 思考類型을 만들고 狂信的인 行動類型으로 연결된 것이 共産主義의 “습관”이라고 보아도 된다.

이렇듯 赤十字會談에서 나타난 行動(박수·일면·김일성 거론)은 共産主義理念을 具現시키기 위한 戰略의 一環이다. 그들의 戰略은 心理的 政略에 基礎하면서 國家政策의 効率的 達成을 支援하기 위하여 여타의 모든 要因들 國家·集團의 感情·態度, 行動)을 자기에게 有利하게 誘導하는 宣傳 및 活動을 組織的이고 体系的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對話機構의 性質

여기서는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라는 對和機構를 中心으로 主로 會談의 內容을 “人道와 政治”라는 視角에서 分析하여 論議를 開陳해 보려고 한다.

家族찾기 運動을 계의했던 昨年 8月 12日 崔斗善 大韓赤十字社總總裁는 “南北으로 갈린 離産家族들의 悲劇은 今世紀 人類의 象

微的 悲劇”이라고 規定하면서 統一宿怨의 實질마리를 풀기 위하여 人道的 見地에서 이 運動을 展開하여 政府의 協調를 확약받았다고 함으로써 政治的 支持와 성원을 暗示했다. 이 “福音의 提議”은 곧 이어 8月15日에 發表된 朴大統領의 慶祝辭에서 人道的 問題는 政治問題에 앞서서라도 時急히 解決되어야 하며 會談의 成功을 위해서 支援하겠다는 뜻으로 再確認되었다.

이것은 그후 9月 予備會談을 提議하는 자리에서 “人道主義精神과 同胞愛”라는 基本精神으로 再闡明되었는데, 한편 北赤代表는 具體적으로 會談進行事項을 提議함으로써 후에 開陳되는 “政治的 妄言”의 態도와 전혀 다른 實務的 性格의 양태를 보였는데 이것은 共產戰略의 側面에서 示唆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1년 남짓한 시간이 予備會談을 위해 供與되는 동안 人道的 民間會談에 政治的 機能이 積極적으로 介在되기 시작한 것은 7月4日의 南北調節委員會 構成이다. 自主·平和統一原則의 合意, 緊張緩和를 위한 諸般措施, 人的, 物的, 政治的, 社會的 多方面的 交流實施 및 南北赤十字會談의 成事등을 推進시키기 위하여 構成된 이 委員會는 政治協商의 產物로서 南北의 實力者會談이라는 뜻에서 政治的 次元의 交流임이 分明하다. 그런데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이 委員會의 發足은 統一努力의 中間結晶임에 틀림 없으며 會談의 進전으로 보아 앞서가는 감이 없지않으나 (外務長官의 人道的 接觸→物資交換→統一論議라는 圖式 參考) 문제는 南北의 如何한 會談이건 政治性의 介入, 嚴格히 말해서 政治的 뒷받침이 不可避하다는 反証이다.

여하튼 赤十字會談의 結實을 위해 南北調節委가 會談을 돕고 調節할 것임이 自明해졌다. 本 會談을 앞두고 이 委員會가 構

成되어 推進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先民間 혹은 “人道” 後政治의 公式에 맞추어진 事例라는 것이 立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南韓이 생각하고 있는 按鮮類型인데 이것이 7.4성명에서 南北間의 양태가 들어 맞았다고 보겠다.

다만 앞서도 지적한대로 北韓이 初期에 행한 實務的인 提議가 후에 행해진 政治攻勢와 다른 態度였다는 程度다.

本會談에서도 南韓의 基本精神은 다시금 強調되었다. 平壤第一次會談의 閉會辭에서 李範錫首席代表는 南北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하나의 民族으로서의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자는 7.4 共同聲明의 基本立場을 상기 시켰다. 또한 그는 “雙方赤十字團體” 들의 任務로 말한다면 헤어진 家族과 親戚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끊어진 거리의 빛줄을 잇는 事業보다 더 큰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말했던 予備會談에서의 北赤代表演說을 지적하면서 이 會談에는 勝敗得失이 있을 수 없고 歷史와 民族앞에 忠實함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서울에서 열린 第二次本會談에서 李首席代表는 議題討論을 위한 基本原則으로 離散家族과 親戚의 自由意思保障, 雙方赤十字社의 主管과 責任下의 獻身的인 赤十字奉仕精神의 具現 그리고 國際赤十字의 傳統的이고 普遍的인 事業方式을 基盤으로 한 迅速성과 正確性등을 提示하여 赤十字性을 再三 強調했다.

이렇게 誠實하고 至純한 南赤의 태도와는 달리 北赤의 第一次會談에서의 演說은 7.4 共同聲明의 比重을 確認하는 태도는 같았으나 統一에의 期待를 結實하기 위한 黨의 支援에 감사하고 會談이 民族統一의 礎石인 것을 強調했다.

그리고 第2次會談에서 金泰禧團長은 會談의 性格을 制度가 對決하는 마당이 아니라 民族的 화목의 마당이라고 規定하고 崇高한 人道主義精神이 雙方 赤十字團體들의 共同事業의 모든 고리들에서 철저히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매개 의정토의에서 자유로운 原則, 民主主義 原則이 관철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자유로운 原則을 상봉에서의 자유로, 그리고 民主主義原則을 의사표시에서의 자유로 부연 說明하고 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같은 用語, 예컨대 民族, 自主, 民主主義라는 것도 그 意味價 (Semantic Value)가 다르다고 하는 點에 注意를 喚起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레닌」도 十月 革命에서 口號로 平和와 平和 自由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周知된 바다. 그러나 共產社會에서의 民主主義란 獨裁主義의 무리한 偽裝에 불과하며 극히 상대적인 意味의 民主主意 조차도 根本적으로 存在치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스·켈젠」교수의 論評을 引用해 본다.

새로운 보다 좋은 世界를 건설하기 위하여 過去의 모든 價值 내지는 虛偽的 價值를 暴力으로써 打破하려는 의도를 公公然히 시인하는 참다운 革命運動의 理想으로서의 「볼셰비즘」理論이, 그리고 그의 가장 著名한 權威者가 事實과의 公公然한 모순을 감행

하고 또 극히 의문스러운 歪曲을 恣行하면서 제시한 이 敎說이, 死刑을 宣告받은 旧文明의 唯一한 價值, 즉 民主主義의 理想만은 이를 살려두려는 척 한다는 것은 奇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李東華訳, 「불세비즘의 政治理論」)

따라서 이러한 意味價의 차이는 그들이 目標로 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假定을 놓게 하는데, 이것은 政治上位의 唯一 金日成 北韓體制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歸結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會談에 임했던 北赤諮問委員과 政黨・社會團體의 祝賀演說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異口同聲으로 多方面으로부터의 拳族的인 參與意識을 高唱한 것과 특히 政黨・社會團體의 參與가 統一事業에 유익하고 의미있다는 것을 強調했다. 특히 尹基福 金炳植 두 諮問委員이 서울會談에서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金日成수령」을 내세우고 共產主義運動을 찬양하며 美國과 日本을 배격하는 演說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앞서 지적한 假想的 思考와 攻撃的 欲求의 發現으로 共產主義思想을 注入해 보려는 底意를 단적으로 立証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人道」와 「政治」의 相衡하는 두 意志가 팽팽히 맞서 있다고 우선 보아야 할 것이다.

會談의 成就를 위해서 「政治的인 것의 導入을 排除할 수 없다는 것은 南北對話의 脈絡에서 보아 必然的이고 宿命的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人道主義가 赤十字의 基本性格이나 精神으로 보아 하나의 原形(Paradigm)으로 그 底邊에 깔려야 한다는 것과 赤十字會談이 政治的이어야 한다는 것과는 別個의 문제이

다. 다시 말해서 이 人道主義는 南北關係의 基本約定인데 흔히 人道와 政治를 二元化시키고 있다.

이것은 人道와 政治를 기본과 그 성취방법이 아닌 同一水準에서 각축시키는 위험을 낳는다. 會談은 분명히 理念과 制度와 體制의 相違를 인정하고 理念의 争点を 完全히 排除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서울會談에서 國民의 감정을 유발시켜 놓은 그들의 태도는 政治的이라기 보다 理念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政治的 • 이라는 것을 피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論理에서다. 赤十字會談은 民間機構로 民族의 大團結을 圖謀함에 있어서 初期에 들찌귀의 役割을 부대적으로 지니고 있다. 南北調節委員會는 政治機構의 性格을 가지고 赤十字會談을 도우면서 統一事業을 성취함에 관련된 多方面의 機能을 행하는 機關이다.

여기서 두 構造의 機能을 볼 때 前者가 統一의 召命을 遂行하기 위하여 離散家族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을 비롯한 諸般機能은 그 內容이 人道的, 社會的인 문제들 다루는 것이지만 政治와 行政의 機能을 同時에 遂行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것은 構造, 機能論의 立場에서 政治的 機能을 • 政策의 形成과 決定 • 으로, 그리고 行政的 機能을 • 政策의 執行 • 으로 이해한다는 뜻에서다. 赤十字會談이 다섯가지 문제들 討議하자고 결정한 것은 이미 政治的 機能이며, 會談에 임하고 聲明을 발표하는 행동은 行政的 機能이다.

한편 南北調節委員會도 赤十字會談을 돕고 決定에 干与한다는 뜻에서 또 그 性格上 政治的 機能을 위주로 삼고 있지만 決定을 執行하는 業務를 행하는 것(南北電話對話등)은 行政的 機能을 수

행하는 것이다. 이런 論理로 본다면 赤十字會談의 政治的 機能遂行이 當然한 歸結로 되므로 여기서의 論議가 政治的이니, 또 次元이 다른 人道的이 아니니 하는 문제들 拳論한다는 것은 論理上的 矛盾을 자아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會談에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은 論理의 비약이다.

問題는 共產主義라는 理念을 人道的이어야 하는 會談에 導入하여 人道와 政治를 重複시키고 두 關係에 혼돈을 자아내게 했으며 이것은 共產理念의 強요를 後退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민감한 共產알레르기 反應이 일었다는 것 뿐이다. 市井에서 흔히 誤導하는 나쁜 內包的 政治라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政治的 機能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과 理念問題를 導入 拳論한다는 것과는 明白히 區別지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심한 共產알레르기 反應은 Amital Etzioni의 理論에 비추어 볼 때 共產主義의 表面目標(Stated Goal)로서의 民族의 自主・平和的 統一이 裏面目標(Real Goal)인 共產化의 裝飾物이라는 것을 國民이 感知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3. 環境的 要因

南北韓 對話나 協商을 펴 나감에 있어서 구태어 Vincent Young 의 모델을 빌리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事項은 環境的 要因이다. 協商의 基本前提로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제시된 理念的인 것이나, 그 밖에 思想과 心理, 그리고 現存하는 對話機構의 性格을 통해서 가름해 본 諸前提들 못지 않게 重視되어야 할 것이 바로 環境的 要因으로서의 國際情勢이다.

冷戰의 時代에서 解氷의 時代로 접어들면서 兩極體制는 三極·四極·五極의 體制로 變貌해 왔다. 結氷의 惡循環이 거듭되던 相異한 두 理念은 對話를 나누기 始作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같은 敎理를 믿어왔던 中·蘇間의 紛爭은 國家的 性格의 탓도 있긴 하겠지만 理念에 기초한 對話의 定石으로 풀이해 볼 때 이상하고 어색하게 비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오늘의 國際情勢는 解氷과 多極을 그 屬性으로 질게 풍기면서 相異한 理念間의 對話의 可能性과 同一한 理念間의 對話의 凍結을 分明히 말해주게 되었다.

自國利 中心의 方向轉換은 結局 이러한 結果를 낳게 한 것이다. 勿論 그 基調는 世界平和와 人類의 永遠한 繁榮이다. 하지만 分明해져 가는 것은 지금의 우리 모두가 共感하는 바와 같이 先進強大國이 되도록이면 그들의 核函率을 넓게 펼치기를 拒否하고 있다는 事實과 여기에 反比例해서 後進諸國은 各己의 自主와 自決을 高揚해 가야 한다는 事實이다. 韓國은 여기서

例外일 수가 없었으며 그래서 南北對話의 始源은 아마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좋다.

지금까지 이 章에서 擧論된 南北協商의 基本前提는 理念의 面에서 보았을 때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收斂이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이었고 思想과 心理의 面에서도 亦是 限界性이 있는것 이라고 아 니 할 수 없다. 또한 對話機構의 性格에서 어긋나는 것은 人道와 政治의 二元化가 不可能 내지는 無意味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環境的 要因은 南北韓의 理念的 收斂까지는 強要하지 않더라도 對話의 必要性을 要求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南北韓의 協商에서 理論的 當爲性과 實際的 現實性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야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데올로기의 問題를 놓고 南北協商의 앞날을 점치고 그 方向을 모색한다는 것은 至難한 일이다. 그러나 東西의 解氷이라는 밀물에 쓸려가는 韓國的 상황에서 지난 27年을 돌아켜 볼 때 民族의 動脈을 다시 잇고자 하는 努力은 眞實하고 崇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極히 希望的인 觀點에서 民族再團結의 앞날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希望的 見解로 最近에 일어나고 있는 바와 같이 朝鮮이 宇宙大會에 우리의 選手團을 초청한다든가, 75年에 朝鮮과 美國이 宇宙共同開發을 하게 된다는가 하는 一連의 事件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叙上의 理念的 分析은 協商에 많은 부대조건

을 달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다. 平和的 共存과 制限的 結合이라
는 前提를 놓고 南北協商은 離散的 性格을 免치 못하는 것이며 따라
따라서 이 基本前提를 充分히 認識하는 한도내에서 協商은 可能한
것이다. 同時에 모든 協商의 方案은 이 테두리 안에서 舉論되어
야 할 것이다.

第三章 協商要員의 資質

南北協商要員을 養成함에 있어서 当初에 생각해야 할 範圍를 第二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地域적으로 限定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南北韓의 協商이 地理적으로 韓半島 內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國外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南北韓協商要員의 概念과 그 範圍속에는 外交官의 概念이 들어가야 한다는 論理가 成立된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南北協商要員으로 外交官을 養成하겠다는 廣義의 뜻이 아니며, 다만 協商要員을 養成함에 있어서 外交官의 資質이 하나의 準拠基準을 提示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解釈하려 한다. 그러므로 協商要員의 資質은 理念과 思想的 發판위에 外交官과 같은 資質을 具備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과히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協商要員의 資質을 論함에 있어서 協商의 分野와 協商을 위한 連繫機關을 염두에 두고 考察해 나갈까 한다. 協商의 分野를 염두에 두는 것은 分野에 따른 資質의 特殊性과 상이성이 判別되었으면 하는 希求에서 이며, 關聯되는 機關을 생각하는 것은 協商要員의 多角的인 資質의 涵養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當然히 連繫되어야 할 機關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다.

第一節 資質과 分野

1. 一般的 資質

흔히들 協商家가 一般的으로 지녀야 할 資質로 들고 있는 것은

- (1) 認耐力
- (2) 洞察力
- (3) 融通性·柔軟性
- (4) 現實性
- (5) 歷史的 透視性
- (6) 豫測力 등이다.

南北協商을 行함에 있어서 思想的 對立에서 오는 過洋度한 叱責에 민감하여 참지 못하다 보면 協商은 깨지고 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비단 南北協商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協商에서도 協商要員이 認耐性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확고한 原則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더욱이 協商 그 자체의 性格이 일의 成事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目標로 삼기 때문이기도 하다.

協商要員이 事實 그 自体를 모든 知識과 知慧를 動員하여 分析할 수 있는 洞察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要員이 갖추어야 할 基本的 資質이다.

비단 協商家가 아니더라도 事物을 正確하게 보고 分析할 수 있는 能力이 없다는 것은 學問의 世界에서나 實踐의 世界에서 바람직한 現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有利한 結果를 낳고져 하는 게임의 場에서 洞察力을 지닌다는 것은 不可欠의 武器가 아닐 수 없다.

協商家가 融通性과 柔軟性을 가진다는 것 역시 必要的 資質 中の

하나이다.

대개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協商에 임할 때 그들 特有의 思考와 行動의 定型性, 그리고 硬直性 때문에 하나의 Alternative 밖에 모르는 弱點을 지닌다. 그러나 協商이라는 것은 相對方을 百퍼센트 完璧하게 알고 임하는 것을 前提로 하지 못한다.

많은 技法을 動員하여 (Simulation 等) 相對方의 戰略을 저울질하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協商狀況에서는 또다른 戰略이나 戰述의 變更이 必要하게 되는 것인데 硬直的인 北韓의 協商態度에서는 그런것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反面에 우리의 境過는 融通性和 柔軟性을 가지고 特定狀況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리라 생각한다. 共產主義者들은 元來 攻擊的이고 많은것을 要求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攻擊的인 그들의 態度로 因해 協商이 破壞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忍耐力 以外에도 柔軟性을 지녀야 하리라 생각된다.

協商要員이 갖추어야 할 또다른 資質은 現實的 感覺을 지니고 이에 敏感해야 한다는 것이다. 協商은 勿論 未來를 위한 것이지만 現在의 問題點을 타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時間的 意味에서 現在的 感覺을 갖고 同時에 觀念的이거나 空想的이 아닌 現實과 實存의 바탕위에서 具像的 感覺으로 協商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協商家가 歷史的 狀況속에서 歷史意識과 感覺을 지녀야 한다는 것도 資質로서 着過할 수 없는 特性이라고 하겠다. 時間的으로 단절된 現實속에서만 協商이 存在하고 展開되어온 것이 아니라 協商의 動機와 期待되는 結果나 効果는 歷史的 意味를 지녀야

마땅하다. 그런 뜻에서 協商은 時間的 次元에서 볼 때 過去와 現在와 未來를 亘하는 것이며 過去의 경우 그 歷史的 觀點이 支柱的 役割을 해 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現在와 未來를 위한 協商 역시 史觀의 테두리內에서 歷史와 傳統의 生命이 연장되고 진작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豫測性은 그래서 協商家의 不可欠한 資質이 되어야 한다. 時間的으로 勿論 未來志向의인 意味에서 豫測性이 強調되어야 하겠지만 協商은 發生可能한 狀況을 想定해 놓고 展開되는 것이므로 豫測力은 協商의 成敗를 가름하는 中樞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列挙한 協商要員의 資質은 網羅的이거나 排他的인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協商을 위해서 바람직한 몇가지를 基礎的인 것만 간주려 본데 불과하다. 따라서 다음엔 다른 각도에서 協商要員의 資質을 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 앞서 지적한 外交官의 資質이 그것으로 協商要員의 資質도 充分히 考慮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주로 Harold Nicolson의 The Evolution of Diplomatic Method(1954)에 提示되어 있는 一般的 特性을 보려는 것이다.

Francois de Callièrres의 주장에 依存하여 논지를 펴고 있는 Nicolson은 “健全外交는 信賴感의 造成에 基礎를 두어야 하며 信賴感은 또한 信義로서만 鼓吹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欺瞞術을 否定하며 正直을 最上의 方策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주장이 北韓의 態度와 맞부딪혔을 때 얼마나 說得力이 있을지 꽤 疑問이 앞서긴 하지만 現實的 特殊性을 일단 도외시 한다면 信賴感을 주

는 外交官 혹은 協商要員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임에 틀림없다. 卽 “真理를 사랑하는 誠實한 人間”이 아니면 안된다. 表現은 달라지지만 「信用에 立脚한 능숙한 銀行經營」과 같은 것을 外交 樣式이나 協商이라고 생각하는 Callières의 또 다른 注文은

- (1) 事物에 對한 예민한 觀察力을 갖춘 知性
- (2) 快樂으로 氣分이 산만해지는 것을 抑制할 수 있는 精神 集中力
- (3) 기교없이 自然스럽게 目標에 達하는 健全한 判斷力
- (4) 行動이 敏捷하고 機略이 豊富하고, 禮儀가 바른 態度
- (5) 스스로를 抑制할 수 있는 自制力
- (6) 威嚴을 가식할 수 있는 程度의 嚴格性
- (7) 秘密交涉을 成功으로 이끌 수 있는 勇氣
- (8) 教養·仁厚·冷嚴등 人間の 屬性들을 되도록 많이 지닐 수 있는 全能人능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상은 勿論 外交官을 위해 具備해야 할 資質을 소개해 놓은 것이지만 앞의 協商家의 경우와 重複되는 것을 除하고 그 나머지가운데에서 協商의 意味와 부합되는 것만 골라 본 것이다. 거개가 協商要員의 養成을 위해서 意味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구지 看過된 것을 따지자면, 例컨대 話術이나 容貌에 對한 言及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이것만이 아니다. 叙上에 열몇가지의 諸要件을 밝히긴 했지만 實上 이것 全部가 完璧한 協商을 위해서 플러스要 因으로 作用하리란 아무런 保障이 없다. 其實 韓國休戰會談의 主役으로 活躍했던 Turner Joy 提督이 How Communists Negotiate? 에서 밝힌것만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理想的이고 完璧한 것

을 期待한다. 卽 “共産側과 協商을 별릴 代表團은 最高의 能力
 갖춘 代表團이라야 한다. 階級, 名聲, 또는 地位 따위는 副次的
 問題이다. 明哲한 思考, 迅速한 判斷등은 必隨不可欠한 範疇에 속
 한다. 속기사나, 通信技師, 통역 또는 代表등 모든 構成員은 各者
 의 專門分野에서 一級程度는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한
 다. 그렇지만 한편 共産主義者들이 간혹 반복하는 이른바 「명칭
 이 手法」 같은 것도 協商에서 效果를 發揮할 때가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요컨대 協商家가 具備해야 할 當爲의 意味의 資質
 을 다분히 理想的이고, 例示的 차원에서 소개했다는 것을 但書로
 부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次元은 좀 다르지만 理想的인 政治家가 되기 위한 要件
 을 미루어 協商家의 一般的 資質에 도움이 되리라는 判斷에서 政
 治分野의 理想型을 소개 한다.

賢明한 政治家는 自己가 처해 있는 國家社會의 環境을 잘 아는
 사람이며 國民의 心理에 통달하는 사람이며 正確한 洞察者이다.
 政治家는 언제나 客觀的인 情勢에 先見之明이 있어야 하며, 어떠한
 情勢에도 對処할 수 있는 頭腦의 柔軟性이 있어야 한다.

政治家는 또한 國際政治에 豊富한 知識과 예민한 感覺을 가져야
 한다. 國際社會가 多元化되고 緊密化되어감에 따라서 政治家는 外
 國의 事情이나 文獻을 自由로 통달할 才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衝動的인 感情이나 盲目的인 判斷을 삼가야 할 것이다.

政治家는 高潔한 品格과 精神의 所有者라야 한다. 그것은 思想과
 感情을 表現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政治家로서의 信念은 또한 확
 고해서 所信을 分明히 하며 障礙를 克服해 나갈 수 있는 勇氣와

剛直性을 가져야 한다.

政治家에겐 또한 寬容의 精神이 必要하다. 相對方의 善은 意見을 받아드릴 수 있는 寬容과 雅量이 必要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性品을 바탕으로 會談에서 對立되는 意見을 調停하고 折衷할 수 있는 能力이 必要한 것이다.

2. 專門的 資質

위에서 拳論한 資質등은 보는 角度에 따라 一般的 資質이 될 수도 있고, 專門的 資質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協商要員을 위하여 유독 專門的 資質을 要求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이라는 特殊性으로 인해 우선 共產主義의 歷史的 背景·思想·心理·態度는 總體的인 知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必須不可欠의 基礎要件이다. 그러나一括해서 專門的 資質을 論한다는 것은 심히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 專門的 資質을 論하고자 하는 것은 協商의 分野와 關聯시켜 具體化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다. 卽 協商의 分野를 지금까지의 南北韓 對話機構의 性格과 南北韓 調節委員會의 合議事項을 통해서 (1) 赤十字會談(家族 찾기, 人道的性格), (2) 經濟分野, (3) 社會·文化分野(學術·스포츠 포함), (4) 外交分野, (5) 軍事分野 및 (6) 政治分野등으로 나누어 놓고 各分野에 특유한 專門的 資質의 必要性이 어떠한 것이냐를 論해야 할 것이라는 點이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대로 共產主義 一般에 對한 知識과 여기에 덧붙여 分野別 知識以外에 資質間에 현저한 差異點을 찾고 구분하기란 때로 至難한 일이다. 다음에 그 例를 들어보자.

예컨대 퍼스낼리티의 測面으로 差異點을 찾아보면 어느程度 相應性이 없는것은 아니다. 卽 퍼스낼리티를 人道的 (Humanistic), 民主的 (Democratic), 權威的 (Authoritative) 으로 나누어보면 우선 赤十字會談의 分野에서는 휴머니즘的인 性品の 소유자가 協商要員으로 등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예컨대 政治分野에서는 尙當치 않고 오히려 이 分野에서는 權威的 性品の 소유자도 무방하다는 가설이 成立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式으로 나누어 그 差異性을 구지 나누어 봄으로써 專門的 資質에 代身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조차도 퍼스낼리티를 外向的 (Other-directed) 인 것과, 內向的 (Inner-directed) 인 것으로 나누어 보면 妥當性은 아주 狹小해진다. 요컨대 尺度의 問題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이 態度 (Attitude), 容貌 (Appearance), 技倆 (Skill), 役割 (Roll), 經驗 (Experience) 에 가서는 그 区分의 意味가 전혀 없어짐으로 實上 分野에 따른 資質의 專門性과 具體性을 밝힌다는 것이 無意味하고 다만 伸縮性을 留保하여 그때 그때 協商分野와 協商相對方에 부합한 性格, 態度, 經驗, 容貌의 所有者를 내세울 수 밖에는 다른 方法이 없다고 생각한다.

第二節 分野와 機關

이 節의 아이디어는 協商要員의 資質로 期待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고, 이에 수반하여 從來 協商에 連繫되어왔던 機關이 이러한 것임으로 우선 協商分野와 機關을 크로스시켜 보고 이로부터 資質涵養의 可能性을 機關을 통해서 類推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資質의 特殊性을 判別하기가 困難해 짐으로써 自然히 어느

機關이 반드시 어떤 資質을 涵養하는데 唯一한 것이다라고 하는 論理는 成立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다만 여기서 分野와 關係機關을 現存성과 可能性으로 나누어 論해보는 것은 長期的인 眼目에서 協商要員을 養成하기 위한 獨立機關의 必要性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參考機關으로서의 價值를 지니기 때문이며, 또한 당장 綜合体系화된 機關이 없다고 하더라도 現在의 協商을 위해서 關聯機關의 Linkage를 明白히 하는것이 必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南北韓協商에 關係해 왔던 機關은 中央情報部의 協議調整局과 北韓局이 主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大韓赤十字社쪽에서는 會談事務局이 그것이었다.

統一院에서는 諸政策研究室이 中心이 되어 南北對話의 進展에 따르는 理論的 뒷받침을 해왔으며 各大學校의 研究所를 통해 南北對話의 現實性을 國民一般에게 認知시키는데 一翼을 擔當했다. 統一院附設 統一研修院에서는 한편 安保教育、中心의 統一教育을 普通教育和 高等教育에 從事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協商에 關한한 協議調整局이 會談에 關한 一切의 業務를 맡고 있다고 보아야 옳기 때문에, 協商要員의 養成問題 역시 從來의 이와같은 機關을 도외시하고 생각할 수는 없을것 같다. 다만 問題는 統一院 같은 政府의 機關이 附設 研修院까지 두고도 그다지 크게 活用되지 못했다는 事實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南北協商은 機關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一元化되어 있으면서 關聯되는 機關과의 Linkage가 그 効를 얻지 못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南北協商은 앞서

도指摘한 바와같이 長期的인 眼目에서 時空을 超越하여 拳論되어야 할 性格의 것이기 때문에 現在로서는 우선 要員을 養成함에 있어서 国内 既存 機關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諸機關을 考慮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協商要員을 外交官의 틀 속에서 보는 觀點은 當然히 外交研究院의 活用을 必要케 한다. 그러므로 国内機關 가운데 外交研究院이 첫째로 關聯機關으로 연계되어야 할 듯하다. 이것은 勿論 言語教育의 側面은 除外하고 一般的으로 外交官을 養成함에 있어서 必要로 하는 基礎科目을 協商要員은 受講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外交研究院의 도움은 協商要員의 外交官의 資質 그 自体를 위해서는 勿論이지만 協商의 外交分野를 위해서도 當然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學術과 스포츠등 社會·文化的 交流를 目的으로 接觸하는 協商分野에서는 우선 學術院과 關聯을 맺어야 한다. 社會·文化分野의 協商要員을 위해서는 마땅히 學術院이 그 選擧와 訓練에 關與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 경우 學術院은 各學校의 研究所와 連繫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記者協會와 같은 社會團體와의 連繫를 通해 社會·文化分野의 協商要員을 養成할 것이 要望된다. 스포츠를 위해서는 大韓體育會가 當然히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海外에서의 接觸을 豫見하여 韓國奧림픽委員會의 協助도 必要할 것이다.

다음은 軍事的 協商分野를 위해서 우선 安保會議가 參與해야 할 것이며 또한 軍事停戰委員會의 多年間 經驗이 크게 活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安保會議는 비단 軍事的인 측면에만 關聯되는 것은 아니다. 國家非常時에 最高議決機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包

括的인 機關이지만 그 以前에 軍事와 가장 關聯을 맺고 도움이 될 수 있는 代表的 機關이 될 수 있기때문에 想定하는 것이다.

다음은 經濟的인 協商을 위한 經濟人聯合會나 大韓商議가 包含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國外機關으로 北韓과의 關係가 密接한 在日居留民團같은 機關도 Reference group으로 생각해 볼만한 것이다.

그러나 以上の 諸機關들은 하나의 例示的인 性格을 지니는 것에 불과하고 協商의 性格을 보다 広範圍하게 解析하고 보다 完璧한 協商要員의 養成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機關을 擴大해 보고자 하는 意圖에서 分布시켜 본것 뿐이다.

또한 協商要員의 養成을 위한 單一機關의 創設이 必要한 것인가 하는 問題도 關聯機關과의 有機的 協調의 程度에서 影響을 받는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單一機關의 設立이라는 具體的 機關(Concrete system)을 생각했다기 보다는 보다 効果있는 協商要員의 養成을 위하여 現在의 与件을 最大限 活用할 수 있도록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 하자는 뜻에서 論議했다고 해야 옳을것 같다. 그러나 적어도 叙上의 協商分野에서 그러한 資質을 갖는 要員을 養成하며, 그것도 關聯된 機關이 많다는 与件을 감안할 때 하나의 單一機關이 養成機關으로 設立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強力한 統合權을 지닌은 勿論 政府組織上에서는 꽤 上位에 位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協商分野와 關聯機關을 메트릭스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図 3 - 1

協 商 連 繫 機 関

		中 央 情 報 部	統 一 院	經 濟 人 協 會	外 交 研 究 院	安 會	保 議	韓 赤	学 術 院	大 韓 体 育 会
協 商 分 野	赤 十 字 會 談		×							×
	經 濟 分 野	×	×	×						
	社 会 分 野	×	×						×	×
	外 交 分 野	×	×		×					
	軍 事 分 野	×	×				×			
	政 治 分 野	×	×							

第四章 協商要員의 訓練

第一節 對北韓協商의 性格과 協商要員의 資質

우리는 前章에서 協商要員이 갖추어야 할 一般的 資質을 列挙하였다. 그 結果 다음과 같은 것들을 資質로서 提示 하였다.

- (1) 忍耐力
- (2) 洞察力
- (3) 融通性, 柔軟性
- (4) 現實性
- (5) 歷史的 透視性
- (6) 豫測力
- (7) 直理를 사랑하는 誠實한 人間
- (8) 事物에 대한 예민한 觀察力을 갖춘 知性
- (9) 快樂으로 氣分이 산만해지는 것을 抑制할 수 있는 精神集中力
- (10) 키교없이 自然스럽게 目標에 달하는 堅決한 判斷力
- (11) 行動이 敏捷하고, 機略이 豊富하고, 禮儀가 바른 態度
- (12) 스스로를 抑制할 수 있는 自制力
- (13) 威嚴을 가식할 수 있는 程度의 嚴格性
- (14) 秘密交涉을 成功으로 이끌 수 있는 勇氣
- (15) 教養, 仁厚, 冷嚴

以上과 같은 諸資質은 一般的으로 理想的인 外交官에게 要求되는 資質이라는 點도 이미 지적하였다.

그리고 以上の 모든 資質이 協商의 領域의 区分없이 共通의 適用되리라는 것도 이미 指摘하였다.

그런데 以上과 같은 諸資質이 共產主義者 乃至 北韓과의 協商에 있어서도 繼續하여 妥當할 것인가의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이것은 共產主義者들이 非共產主義者들에 比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特殊한 價值觀, 態度, 行動樣式이 있는가의 問題인 同時에 萬一 이런 特殊性이 있다면 그것이 要求하는 南韓側 協商要員에 대한 要求資質이 무엇인가의 問題를 意味한다.

共產主義者들은 그것이 蘇聯이든 中共이든 北韓이든 다 같이 協商資勢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即 이들은 「마르크스」의 哲學과 「레닌」의 戰術을 敎本으로 使用하여 協商에 對処한다. 即 「누가 누구를 몰아내고 瓦解시키느냐?」의 公式에 弁証法을 適用하여 伸縮性과 強硬論을 同時에 驅使하는 方式을 採한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協商이란 共產主義實現을 위한 資本主義 社會破壞를 위한 一時的인 戰術的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西方側의 代表를 대할 때에 疑心, 敵介心, 自己優越의 자만심 等으로 對하며 鬪爭의 相對者로 看做한다.

특히 이들 西赤側 代表들은 資本主義 社會의 代弁人視될 것이며 따라서 敵介心은 더욱 高潮되고, 이들의 所謂 同情心은 西方社會의 大衆에게로 向한다. 그러나 이런 同情心은 表面的인 行動指向에 지나지 않고, 그 內實에 있어서는 大衆은 革命을 위하여 선동과 工作의 對象으로서 利用해야할 存在로 認識된다.

이것은 共產主義者들이 協商過程에 있어서 노리는 附隨效果中에서 大衆에 대한 宣傳的 價值를 매우 重視하는 理由이다. 오히려 大衆에의 接近은 많은 境遇에 協商의 附隨效果라기 보다 直接目標에 該當하고, 協商은 이를 위한 手段的 價值밖에 없는 境遇도 있다.

또한 前章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같은 用語라도 共產主義者와 西方側間에는 그 意味價가 相異하다. 特히 政治라는 用語의 解釋에 있어서 西方側에서는 政治를 狹意의 機能을 遂行하는 것으로 看做하는데 대하여 共產主義者들은 政治는 모든 것을 統合하는 広範圍한 機能을 遂行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換言하면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는 經濟도 政治요, 社會, 文化도 政治요 體育도 政治요 人道도 政治요, 技術도 政治이며 이 世上에 政治아닌 것이 없는 것으로 看做된다. 換言하면 經濟, 社會, 文化, 體育, 人道, 技術等은 政治目的 實現을 위한 手段的 價値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西方側에서는 以上の 諸領域은 政治의 領域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特히 人道, 技術, 體育等은 그렇게 認識된다고 할 수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따라서 모든 協商領域에 있어서 이를 政治化 (Politicize) 하려고 생각하고 政治目的을 위하여 利用하며, 大衆에의 侵透手段化하려는 傾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政治를 掌擧하는 黨은 「맑스」와 「레-닌」의 公式을 基本指針으로 따르면서 모든 協商領域에 關한 司令塔으로서 長期的인 眼目 또는 目標成就를 위하여 体系的으로 計劃된 一連의 行動過程으로서 協商을 把握하고, 다만 戰術上의 策略에 있어서의 融通性만을 認定하게 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點에 비추어 보아 西方側의 協商者는 위에 揭記한 諸資質外에도 對共協商에 있어서는 巨視的인 視野의 所持者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協商에 있어서 그의 直接效果보다 附隨效果로서의 國內, 國際的 影響에 關한 相對方의 意圖를 읽을 줄 알아야 되며, 이에 對應하여 我側이 成就하여야 할 附隨效果를

重視할 줄 아는 資質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特히 이 資質을 所謂 非政治領域인 人道, 技術, 體育, 學術, 經濟, 文化 등의 協商에 있어서 我側의 該當領域 專門人이 갖기 쉬운 非政治的 屬性이나 狹少한 見解를 是正하기 위해서 強調되지 않으면 안된다.

特히 協商資勢에 있어서 北韓이 蘇聯이나 中共과 義異를 보이는 點은 저들이 「맑스, 레-닌」의 公式에 追從하는 程度가 他國家보다도 가장 철저하다는 것을 自負하고 있는 純粹派로 自勉하고 있다는 點이며, 따라서 저들에게서는 協商資勢의 融通性이 他共產國家에 比하여 매우 적다는 點이다. 그리하여 對北韓協商은 我側의 立場에서 볼때 他共產國家에 대한 그것보다 더욱 困難한 것이며 直接成果의 早期 期待는 어렵다는 것을 意味한다. 反面에 北韓側의 協商에 臨하는 行動의 解釈과 豫測은 그 主된 윤곽에 關한 限 他共產國의 그것에 比하여 定型性 公式性이 높기 때문에 比較的 容易하다는 것을 意味하며 나아가서 我側이 이에 對処할 戰略을 樹立하는 것을 容易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會談戰術面에서는 이들은 교활하고, 민첩하며, 鉄面皮한 行動樣式을 가진 者들이다. 이들이 흔히 使用하는 方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例拳할 수 있다.

1. 議題, 日字, 場所 등의 提議와 決定에 있어서 機先을 掌握하여 會談의 主導權이 自己들에게 있는 格으로 하여 己의 對內, 對外 이미지 부각에의 利用
2. 추상적인 用語로 表現될 수 있는 即 意味價는 달리 認識할 수 있는 用語가 使用될 수 있는 原則問題에 대해서는 合意하고 좀더 具體的인 問題의 合意에 있어서는 自己들의 主張을 貫徹하는 것.

3. 長時間 宣傳戰을 通하여 相對側 代表에게 負擔感을 주어 士氣를 低下시킨 후에 양보를 유도하는것
4. 追求하는 目的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倫理나 道德觀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을것.
5. 虛偽事實을 反復하여 主張함으로써 事實化하려는 것
6. 前後 二律背反的 行動, 모순되는 行動도 삼가하지 않는것.
7. 相對側이 受諾할 수 없는 案을 提案하여 보다 有利한 協商高地를 占領하고, 後에 相對側에게 同提案 철회에 대한 代價를 要求하는 強奪的 手法을 使用하는 것
8. 自己들의 利益과 宣傳目標에 有利하도록 計算된 事件을 操作하는 것.
9. 眞實을 斷呼하게 否定할 것이며, 眞實을 孟曲할 것이며, 어떤 事件中の 一部 枝葉的 事實을 꼬집어 내어 本來의 事實과 完全히 反對되는 結論을 도출할 것이다.
10. 이루어진 合意를 부정하는데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며, 文書로 合意된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일것이다.
11. 기회 있을 때마다 저들의 發言에서는 金日成 유일思想의 宣傳을 통한 이미지 투사노력을 할 것이다.
12. 我側의 弱點의 發見에 努力할 것이며 特히 選舉期가 그런 時期에 限한다고 看做하고 이의 利用을 위하여 努力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것이 北韓側의 協商戰術 方法으로서 빈번히 使用되는 것이라고 하면 我側의 協商要員은 相對方의 이런 戰術을 充分히 안다는 것 外에 어떤 資質을 必要로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勿論 위에 列挙된 15種의 資質의 大部分이 도움이 될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充分한 느낌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위의 15種은 中世 近世等에 있어서 非共産國家를 對象으로 하여 協商을 할 때의 外交官的 資質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對共産國家 그것도 對 北韓關係의 協商에 있어서는 我側의 協商要員은 이에 참가하여 더욱 特殊한 資質을 必要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資質은 어떻게 構想되어야 하는가?

本研究者는 이에 對하여 我側의 協商者는 위의 諸資質에 참가하여 共産側의 協商要員과 基本的으로 類似한 資質을 具備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協商이란 힘의 均衡을 前提로 하는 것이며, 힘의 均衡關係는 協商要員이 代表하는 國家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힘의 均衡 뿐만 아니라 協商要員의 個人的 能力에 있어서도 힘의 均衡이 始發點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共産側要員이 具備한 資質도 갖추고 이에 더하여 위의 諸資質을 兼備시킴으로써 協商要員의 能力比較에 있어서도 有利한 高地를 占領한 立場에서 協商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我側 協商要員들에게 바라는 이런 意味의 추가적 資質은 무엇인가?

1. 相對方의 發言과 行動에 對하여 일단 全部 의심하는 態度를 가져야 함. 다시 말하면 好意에 의하여 저들을 信賴하는 行動은 絶對禁物이라고 생각된다. 相對側의 言動은 底辺에 말려 있는 眞正한 目標가 무엇인가를 迅速히 把握할 수 있어야 한다
2. 北韓側과는 協商에 있어서 어떤 根本的인 妥協에 到達할 수

있으리라는 期待感을 갖지 말것. 왜냐하면 저들이 이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3. 相對方의 사소한 言動에 대하여도 敏感하게 이를 觀察解釈하되, 이에 대한 我側의 反應에 있어서는 신중을 期하고 我側이 取할 行動의 決心에 있어서 민첩할것. 왜냐하면 저들은 長時間의 지연作戰끝에 새로운 指令만 받으면 數時間內에 大선 회하여 새로운 問題點이나 合意提議를 갖고 나오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4. 西方社會나 傳統社會에서 通用되는 倫理觀, 道德觀, 禮儀等을 지나치게 尊重할 必要가 없음. 이런 點들을 違反하면서도 良心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資質을 必要로 한다. 그러면서도 國內輿論, 國際輿論에 좋은 이미지 投射를 위하여 이와 같은 法 規範에 充實히 따르는 것같이 보일것.
5. 二律背反的 行動을 하되 이에 대한 良心의 加책을 느끼지 않는 資質을 가질것. 即 先後 行動의 모순도 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그의 合理性을 믿을 수 있을 것.
6. 허구도 事實化할 줄 알아야 하고, 斷片的 事實을 擴大 해석하여 全體的 眞實로 만들고, 實現不可能한 案을 主張함으로써 後의 妥協을 위한 代價要求의 根拠로 할 수 있을것.
7. 我側의 協商者는 協商過程에서 損益計算 또는 費用便益分析을 迅速하게 할 수 있을 程度의 分析的인 資質을 具備하여야 함 이것은 相對方이 교환하고, 민첩하다는 點에 対応하기 위하여 我側이 迅速하게 判斷을 내리기 위하여 必要한 資質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以上에서 對共協商 乃至 對北韓協商에 있어서 特別히 要求되는 資質들을 檢討하였다.

그런데 協商에 必要한 一般的 資質이거나 對北協商에 必要한 特殊資質이거나 間에 그것들은 다 協商要員의 性格的 資質을 中心으로 하고 이에 附隨하여 態度面을 다룬 것들이었다.

그러나 協商要員은 性格上의 資質만 具備하면 곧 協商에 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要素들도 具備하여야 비로서 完全한 意味의 協商要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로 理念이라는 概念에 의하여 整理할 수 있는 要因들을 具備하여야 한다.

即 協商者는 自由民主主義的인 政治哲學의 信奉者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政治哲學이 韓國의 境遇에 어떻게 適用되어야 한다는 信念의 所有者라 한다. 또한 資本主義經濟, 自由競爭의 經濟의 長點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信奉하는 表라야 한다. 이런 것들은 特別히 共產主義, 社會主義, 全體主義와의 對比에 의하여 各各의 長短點을 比較한 위에 確立된 信念이라고 한다.

特別히 以上은 莫然한 抽象的 레벨에 머물지 말고 具體적으로 北韓과 大韓民國과의 現實에 立脚하여 說明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흔히 忘却되기 쉬운 것으로서 매우 重要한 것은 愛國心이라고 할 수 있다. 大韓民國에 대한 一體意識과 忠誠心이 高度로 要求되는 分野가 바로 對北韓協商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매우 広範圍한 領域으로서 知識의 「캐티고리」에 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即 相對를 알고 自己를 안다는 意味에서 必要한 一連의 知識體系를 意味한다.

相對方을 아는데 必要한 知識은 다음과 같은 種類의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共產主義理論과 「베-년」의 戰術. 北韓과 他共產國家間의 關係. 國際情勢와 北韓의 立場, 北韓社會의 構造와 動態, 北韓과 的 協商經驗의 分析等이 必要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北韓指導者들의 基本戰略(例: 統一問題)과 協商對象이 되어 있는 領域(例: 體育)과 他領域(例: 政治, 軍事, 經濟, 社會)의 關係, 該領域의 實情, 該領域에 있어서의 北韓의 戰略, 戰術 等에 關한 知識도 必要할 것이다. 또한 北韓側 協商要員의 供給源 및 이들 要員들의 背景과 心理構造의 分析等이 必要할 것이다.

我側을 아는데 必要한 知識은 다음과 같다. 韓國의 政治, 經濟, 軍事, 社會, 文化面의 實情과 이들 各領域間의 關係, 韓國과 友邦國家들 間의 關係 및 國際情勢의 變動과 韓國의 立場, 對北協商的 基本戰略과 指針, 協商對象이 되어 있는 領域(例: 體育)과 他領域과의 關係, 該領域에 있어서의 韓國側의 實情, 諸領域에 있어서의 對北協商的 基本戰略과 指針, 我側 協商要員들의 強點과 弱點에 關한 知識等이 必要할 것이다.

셋째로 理念과 知識이 만나는 性質의 것으로서 國利의 追求熱과 知識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위에 列挙한 諸知識體系의 一般的 基礎위에 具體的인 「잇슈」中心으로 發展되는 國利追求를 위한 戰略 戰術體系와 이를 밀고 나갈 推進力의 根源이 되는 愛國的 熱誠을 말한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協商도 成功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以上을 總整理하면 우리는 첫째로 一般的 資質로서 15種을 들었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外交官的 資質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巨視와 政治的 觀點의 開發과 더불어 對北韓協
 商에 必要한 特殊한 資質로서 7種을 들었다. 이들을 綜合하여
 우리는 對北韓 協商要員이 必要로 하는 特殊資質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以上の 첫 제 部類와 둘째部類의 資質들은 주로 協商要員
 個人의 性格構造에 關한 것이라는 點은 이미 지적하였다.

세째로 協商要員이 具備해야 할 資質로서 우리는 理念, 相對와 自
 己에 대한 一連의 知識, 그리고 國粹意識이 必要하다고 主張하였다
 以上을 綜合하여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圖 4 - 1

協 商 要 員 의 資 質					
國 利 意 識	理 念	知 識		性 格	
		相 對	自 己	一 般 的 資 質	特 殊 資 質
				15 種	7 種

第二節 協商要員의 訓練機關

우리는 第二節의 末尾에서 協商分野 또는 領域과 關聯하여 有關
 聯繫機關을 列示하였었다.

本節에서도 이와 같은 關聯機關들을 論하고자 한다. 그 理由는
 南北協商要員이 必要로 하는 資質을 導出한 다음에 惹起되는 論理
 的인 傾向은 누가 어떤 資質을 供給할 수 있는가의 問題가 提起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問題에 대한 解答을 通하여 同時에 南北協商要員의 訓練 担当機關이 어떤 機關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結論도 얻고자한다 周知하다 싶이 現在까지 南北協商要員에 대해서는 体系的으로 確立된 訓練制度나 訓練 担当機關이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即 散發的 即興的인 方針보다 一貫性 있고 政府의 確立된 政策으로서 提示된 訓練政策의 必要性이 매우 緊迫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訓練 担当機關의 境遇에도 그 体系의 確立必要性을 切感하면서 本節에서 이 問題를 取扱하고자 한다. 이제 以下에 各資質制로 이를 供給할 수 있을만한 機關의 名을 列挙하여 보기로 하며, 可能的 限 列挙順位도 그 貢獻 可能度에 의하여 記載하기로 한다.

圖 4 - 2

必要한 資質	資質 供給機關
理 念	統一院, 大學校, CIA
國利意識과 知 識	統一院, CIA, 安保會議, 外務部, 分野別專門行政部處
自己 知識	分野別專門行政部處, 統一院, CIA, 大學校
相對 知識	統一院, CIA, 大學 및 社會의 共產圈專門研究所
一般的 資質	外交研究院
特殊 資質	CIA, 統一院, 社會의 共產圈專門研究所

以上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은 對北協商要員의 養成에 있어서는 大體的으로 위의 表에 列挙한 機關들이 關聯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統一院과 CIA는 빈도가 가장 높은 點에 비추어

보아 이 두 機關이 訓練담당의 中樞機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 두 機關은 一般的 資質의 供給에 있어서는 그 能力이 없다고 看做하여도 過言이 不임으로 結果적으로 外交研究院을 追加하여야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統一院, 外交研究院, CIA의 三者의 合同機關이 訓練담당의 核心機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有關機關들은 이런 中樞機關과 有機적으로 協同하여 相互 補完하고 有無相通하는 組織關係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以上은 協商領域의 如何에 關係없이 언제나 共通으로 該當하는 方針이라야 한다.

그런데 協商分野가 달라질 때에는 該當分野의 專門機關(그것이 行政機關이든 非行政機關이든)이 訓練事業에 參與하는 問題가 抬頭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있어서 該當分野의 性質의 包括성과 對共協商의 特殊性에 비추어 純粹한 意味의 專門機關以外에 他機關도 參與해야 할 것이다. 이 他機關은 위에 揭記한 여러 機關과 重復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機關일 수도 있다.

이제 協商의 各分野別로 그것이 必要로 하는 協商進行上의 必要한 知識의 広範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模型을 構想할 수 있을 것이다

圖 4 - 3

	人 道	經 濟	社会文化	軍 事	外 交	政 治
人 道						
經 濟						
社会文化						
軍 事						
外 交						
政 治						

이 圖表에 의하면 例를 들어 經濟分野의 協商要員의 養成에 있어서 經濟關係의 機關(例: 行政機關, 經濟人團體) 뿐만 아니라 軍事, 外交, 政治方面의 機關도 關与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同時에 이 圖表는 訓練의 執行에 있어서 經濟分野의 協商要員들에게 供給해야 할 知識은 經濟, 軍事, 外交, 政治에 대한 것들을 包括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뿐만 아니라 本模型은 協商 Team의 構成에 있어서도 經濟關係人士 以外에 軍事, 外交, 政治分野의 專門知識을 갖고 있는 人士들로서 構成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第三節 協商要員과 訓練要員의 選定

1. 協商要員의 選定

우리는 앞에서 訓練機關의 問題와 關聯하여 協商要員의 Team 形成에 關한 暗示를 한바 있다.

이제 이 概念을 더욱 發展시키면 다음과 같다.

即 協商要員의 供給源은 前節에서 言及한 諸機關이 될 것이다

이때에 各機關을 代表하는 要員들은 該當機關에서 第一次의 추천權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들의 選定最終權限은 協商推進의 主体가 되는 機關에서 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協商要員의 選定에 있어서는 事前에 關聯諸機關間에 그의 選拔基準 人員等を 決定하고 이런 基準에 依拠한 위의 추천, 選定の 節次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協商補助要員이나 記者等の 選定에 있어서는 亦是 그 準則이 事前에 協議 決定되고, 이에 根拠하여 具體적인 추천과 選定 作業이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協商要員, 補助要員, 記者等は 全的으로 指名될 수도 없고 全的으로 自發的일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即 本人의 意見과 協商推進側의 意思와의 合義에 의하여 추천, 指名되는 節次가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協商過程에 있어서의 達誠과 一體意識은 本人의 意思가 反映된 경우에만 더욱 確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反面에 全的으로 自發的 意思에 의할 수만을 없으리라는 것은 自明하다고 생각한다.

協商要員의 추천, 指名에 있어서는 特別히 過去 對北協商에 從事했던 經驗의 所持者가 特別히 우대 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이것은 協商分野가 다른 경우에도 可能한 限 反映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以上으로 미루어 보아 協商要員의 訓練課程은 各領域別 課程, 共通過程, 協商要員課程, 補助員課程, 記者過程, 對北協商經驗者課程 등의 諸課程으로 構成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協商要員選定에 있어서는 特殊한 性格檢証方法을 適

用하여 이에 通過한 者에게 訓練을 받을 資格을 賦与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記錄한 協商要員의 資質中에서 性格을 中心으로 한 것이 가장 그 比重이 크다는 것과, 成人의 協商要員을 訓練을 통해서 性格改造作業을 한다는 것은 設或一部分적으로는 可能하여도 全面的 改造는 至離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既往이면 우리가 바라는 性格型의 사람을 求得하여 訓練한다면 그 効果는 훨씬 더 크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現在로서 위와 같은 性格上의 諸資質을 檢証하는 技法은 心理學에서 開發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런 性格檢証(Personality Test)의 方法을 開發하여야 하는데 이는 國內 心理學界의 頭腦를 效率的으로 活用하면 可能한 作業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訓練對象人口와 訓練修了者에 대한 Coding System의 導入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이 制度의 目的은 平常時부터 協商에 從事할 底辺人口를 擴大하여 確保함으로써 적어도 記錄上 Pool化하여 두었다가 緊急한 경우에 協商 Team을 構成해야 할때에 迅屬히 그 가장 優秀한 協商要員들로 對處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Coding作業과 그 資料의 保管은 統一院에 集中化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訓練要員의 選定

協商要員의 경우와는 달리 訓練에 從事할 要員들은 그 底辺人口의 擴大가 必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訓練 그 自体에 대한 集中的 專門化에 더욱 많은 重点이 주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訓練要員은 成人에 대한 各種의 訓練方法에 대하여 익숙하게 알고 있고 繼續하여 訓練 自体에 從事할 사람이라야 한다.

訓練要員은 上記한 統一院, CIA, 外交研究院等の 各機關中에서 特別히 訓練自体에 專門적으로 從事할 目的으로 別途로 指定된 사람들이라야 한다. 이리하여 이들은 對北協商의 實質的인 「잇슈」에 關한 研究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協商要員으로서 協商 Team의 構成人員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訓練自体가 專門化되고 그 内容이나 方法의 發展을 期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 内容의 일은 協商自体에 比하여 음지에서 活動하는 間接的 活動에 該當하며, 따라서 特別히 매력있는 職種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訓練部署가 現在 政府의 各級 各種 公務員 教育院의 訓練要員들과 같이 얽은 士氣속에서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이들에 대한 特別한 誘引體制의 마련이 特別 考慮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訓練要員의 경우에도 協商要員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一方的인 指名이나 強要에 의하지 말고, 自發的 意思와 指名의 兩面이 適切히 反映되어서 選定되어야 한다.

訓練要員의 選定에 있어서 特別히 考慮되어야 할 또 하나의 點은 過去 對北協商에의 經驗이 있거나 他國과의 外交上의 協商經驗이 있는 者들이 中樞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後述하는 바와 같이 그 訓練方法에 있어서 우리는 추상적인 理論 보다도 實踐에다가 더 많은 重点을 두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必要에 의하여 越南自首者가 可能하면 訓練要員의 一部를 形成하도록 하는 措置도 있어야 한다.

第4節 訓練에 必要한 情報體制

統一院, CIA, 外交研究院 등에서 訓練에 從事하는 專門要員들은 同時に 訓練政策의 立案 研究를 担当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政策의 立案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局面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이중에서 「누구에게」라는 문제는 前述한 協商要員의 Coding System의 일환으로서 그에 必要한 情報가 訓練部署(특히 統一院)에 集中 貯藏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問題에 대한 決定을 할려면 一般理論이나 學術論에 觸한 것을 除外한 大部分의 것을 時日의 變遷과 더불어 迅速히 變化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迅速히 變化하는 情報의 大部分은 訓練專門部署 以外の 他部署가 所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訓練專門部署는 訓練所要(Training Needs)의 把握에 있어서 他部署들에 依存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他部署들은 訓練部署가 産出로서 배출한 訓練된 協商要員들의 需要者라고 할 수 있다.

이런 需要者들이 訓練部署에 대하여 要求하는 型의 人間을 産出시키기 위하여는 訓練所要에 대한 情報를 投入으로서 供給하는 體制가 確立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이 問題의 性質上 當然히 그러해야 할 뿐만 아니라 從來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現狀을 訓練機關은 獨者的

研究와 判斷에 의하여 訓練所要를 決定하고, 그 內容을 가르쳐서 修了시키는 方法을 抉했음으로 訓練의 有関性(relevancy)이 欠如되었다는 批判을 需要者側으로 부터 받아 왔다는 것 때문에 이런 過去의 인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도 매우 重要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깝게는 統一院, CIA, 外交研究院等の 内部部署들 중에서 訓練에 直接 從事하지 않는 記者들은 各己 自己機關의 訓練專門部署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關한 情報을 수시로 供給하는 体制가 마련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上記 統一院, CIA, 外交研究院等間의 橫的인 情報供給体制 그리고 上記한 訓練有関諸機關 모든 것들 까지의 情報供給과 環流에 대한 体系的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訓練所要의 正確한 判斷은 以上과 같은 統合的인 情報体制가 確立되고 訓練部署가 이 体制로 부터 끊임없이 各分野의 專門的인 情報를 入手하는 때에만 可能하다고 생각한다.

訓練部署는 各分野의 專門機關으로 부터 投入되는 情報를 協商要員의 必要資質의 把握이라는 角度에서 分析하고 研究하여 實驗하고, 그 結果를 다시 需要部署의 檢討를 받는 節次를 取하여 만 할 것이다.

第五節 訓練 方法

1. 序

本節에서는 訓練需要를 위에 把握한 協商要員의 資質로 把握하고 訓練 担当 機關이 決定되고, 訓練要員과 被訓練者가 決定되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情報体制가 完成된 以後에, 訓練場에서 訓練要員들이 採択해야 할 訓練方法(Training Methods)의 問題에 關하여

論하고져 한다.

2. 合宿訓練

協商要員 또는 被訓練者들이 訓練場 外에 場所로 부터 訓練場 까지 每日 出勤하는 型態의 訓練보다 一定期間 合宿訓練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그 理由는 合宿訓練이 短期間內에 더욱 많은 것을 習得할 수 있게 하고, 被訓練者가 職場이나 家庭의 諸慣性이나 問題點으로 부터 解放되어 完全히 訓練에 沒頭할 수 있다는 一般的 長點以外에도 다음과 같은 理由에 있다.

即 本訓練은 前述한 바와 같이 單純한 知識의 伝達 뿐만 아니라 被訓練者 個個人의 性格上의 變化까지 試圖하는 訓練이다. 이런 目的의 訓練은 訓練期間中에 訓練機關쪽에 被訓練者의 全生活에 대한 完全한 統制權이 부여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機能을 할 수 있는 訓練은 合宿訓練 뿐이다.

이것은 訓練期間中에 外界와의 接觸을 斷切한다는 意味에서는 密封教育和 類似하나 被訓練者의 自發性이 訓練動機에 作用하고 있고 單純한 註入式 教育이 아니라는 點에서는 共產體制下에서의 密封教育和는 相異하다고 할 수 있다.

3. 性格變化와 訓練의 效果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이미 그 性格이 形成된 成人들을 對象으로 하여 性格의 變化를 圖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에 屬한다.

따라서 우리는 被訓練者의 選定過程에서 이 問題의 심각성을 덜기 위하여 特別히 性格檢證方法을 適用할 것을 建議하였었다.

따라서 우리의 被訓練者들은 性格面에서 比較的 同質的 要素를 具備한 者들이라고 假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特殊 性格檢證方法이 不完全하게 開發된 狀態下에서는 우리의 被訓練者는 그 性格面에서 同質的이지 못할 것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訓練機關은 被訓練者들이 위에서 要求한 性格上의 諸資質을 具備하도록 百方の 努力을 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具體的인 訓練方法의 檢討에 드러가기 前에 注意를 喚起해야 할 點이 있다.

그것을 知識의 投入에 比하여 性格上의 資質의 投入은 언제나 萬全을 期할 수 없다는 것이다.

訓練效果는 기껏해야 一部の 資質이 投入되는데 止이거나 被訓練者로 하여금 自己의 性格構造를 變化시키고져 하는 自發的인 動機를 造成하는 程度를 最大限의 實現可能한 效果로서 내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讀書와 레포트 作成

讀書는 被訓練者에게 知識을 供給하기 위해서 使用되는 手段이다. 레포-트作成은 被訓練者로 하여금 그가 갖고 있는 知識을 具體的 事例에 關하여 体系的으로 適用하여 結論을 導出하는 演習을 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이 兩方法은 共히 協商要員의 訓練過程에서 採択되어야 하며 特히 讀書量 및 레포-트件數 등의 配定에 있어서 被訓練者가 訓練期間中에 雜念에 사로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多情하게 지내도록 하는 考慮가 감안 되어야 한다.

그리고 레포-트題目은 주로 協商의 争点を 中心으로 함으로써 書籍과 資料, 經驗, 洞察力等を 綜合적으로 適用 구사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어야 한다.

5. 講議方法 (lecture method)

이 방법은 知識의 供給만을 위하여 行하여 지는 것이다. 換言하면 理念, 國利意識, 性格的資質의 形成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訓練課程에서는 構成方法은 基本的으로 忌피하여야 되며, 基礎理論的인 學術知識의 提供에 있어서 一部 制限的으로 使用하는 程度에 그쳐야 할 것이다.

知識의 供給에 있어서는 講議方法은 가장 그 效果가 적은 것으로 認識하는 것이 教育學界의 共通的인 立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그 文化的인 傳統 때문에 被訓練者가 自己를 學生으로 認知하고, 訓練要員을 教師로 認知하며, 教師 또는 教授는 강단에 서서 論理的으로 體系가 整然한 講議를 해줄 것을 期待하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本訓練課程에 있어서 以下에 紹介하는 講議以外的 諸方法을 使用하는 때에는 被訓練者가 不滿을 表示하고, 이 不滿이 教育效果의 達成에 좋지 못한 影響을 줄수도 있다는 것을 事전에 豫測하고 計劃을 立察하여야 한다.

6. 세미나方法 (Seminar Method)

세미나方法도 亦是 知識의 傳達를 目標로 하는 訓練方法이다. 被訓練者들은 事전에 教授가 提供한 讀書資料를 탐독한 後에

주된 概念이나 問題點을 中心으로 討論을 展開하여가며 이過程에서 教授가 中心的인 役割行使를 하게 되어있다.

이 방법은 知識 傳統의 効果성에 있어서는 講議方法보다 더 우수하다는 點은 公認되어 있다. 또 教授의 能率方法 如何에 따라서는 被訓練者의 興味를 환기할 수 있고 討論의 초점을 잘 이끌 수 있으며, 나아가서 學生의 事前準備가 充分하면 講議方法에 못지않게 많은 分量을 카바할 수 있는 長點을 갖고 있다.

知識의 傳達를 위하여 本課程에서는 講議方法보다 세미나方法을 勸告하는 바이다.

7. 事例方法 (Case Discussion Method)

이 방법은 知識의 投入과 態度, 思考方式 등의 改造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方法이다.

잘 研究 開發된 事例의 수집과 記錄作業이 先行되어야 한다. 例를들어 過去の 南北協商의 事例를 事件中心 또는 어느 斷面을 잘라서 事例化하는 경우에 매우 有用하게 使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將來의 協商事例를 假想하여 作成하여 使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잘된 事例는 그內容이 一見 複雜하게 되어있고, 그속에서 여러개의 長點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事例의 長點은 위에서와 같이 知識外에 願하는 態度나 思考方式을 開發할 수 있다는것 外에는 다음과 같은 點에 있다.

첫째로 事例는 被訓練者에게 生々한 現實感覺을 줌으로써 많

은 興味를 喚起시킬 수 있다.

물체로 事例는 複雜한 現實속에서 여러가지로 얽힌 事實로부터 分析하는 能力을 키워 준다.

그러나 事例의 短点은 被訓練者가 事例속의 人物과 自己를 完全히 一体化시키지 못하고, 分析對象으로서의 客觀的 事實로만 처하게 만들기때문에 後述하는 役割行使에 比하여 學習效果가 적다는 點이다.

또한 明白한 共通結論을 導出하는 것을 禁하기때문에 學生들 의 立場에서 보면 혼돈만 造成되고 어느 方向으로 向하여 自己知識이 進展하는 느낌을 갖지못한다는 點도 短点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訓練方法으로서의 事例方法은 前述한 세미나方法和 連 結하여 使用되는 것이 一般的인 慣例이다.

本課程에서도 이事例方法을 部分的으로 使用할것을 勸告한다.

8. 役割行使 (role playing)

이方法은 實際의 狀況을 그대로 演出하는 것이며, 이속에서 各被訓練者는 事例속의 人物이 되어 各己 相異한 役割을 行使 하게 된다.

假令 例를들면 協商에 있어서 協商當事者인 兩側國家의 어느 한 國家의 代表團이 여러名으로 構成되는 것으로 보고, 이代表 團內에서 생겨나는 問題에 이 方法을 適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對象이 되는 問題는 한 代表團이 相對側의 代表團이 提起한 問題에 對한 反應表示의 問題를 갖고 그代表團內의 集 團的인 意思決定過程을 거쳐서 態度表明을 하게 되어있는 경우 에 이 態度表明의 決定을 둘러싼 代表團內의 人間關係, 權限,

責任關係, 意思傳達問題等等에 關한 洞察力을 開發하고, 이의 改善方法을 提示할 수 있을 것이다.

事例方法에 比하여 參與者의 興味度도 높고 따라서 習得效果도 매우 높은 方法이다.

이方法은 後述하는 「게임」, 「In-Basket Exercise」方法等과 함께 現實을 그대로 再演하는 게임으로 Simulation method 라고도 부른다.

南北協商問題에 있어서도 過去에 協商에 從事하였든 經驗의 所持者가 密接하게 關聯하여 이런 役割行使의 劇本을 만든다면 매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傳統的으로 行政學이나 經營學에서 使用되는 役割行使方法을 若干 變造하여 協商要員의 養成에 使用한다면 더욱 많은 效果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行政이나 經營에 있어서의 役割行使方法에서는 劇本속의 各個人이 發言하고 行動하여야 할 內容이 事전에 一定하게 定하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各個人이 發言, 行動을 몇가지 式의 代案을 마련하여, 其中의 어느 하나를 選定하여 行使할 것을 教授가 提示하고 이렇게 各各 다른 發言이나 行動을 行使하는 경우의 相異한 結果에 對한 分析, 評價를 하는 式으로 使用한다면 더욱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細密한 事前準備(例, 豫象되는 發言의 內容의 카-드化, Coding, 役割行使途中에 있어서의 카-드選擧의 기민성等) 作業이 先行하여야 한다.

9. 게임方法 (Game Method)

이 方法은 서로 敵對하는 二個以上の 當事者를 假定하고 이 경우 어느 一方이 相對方의 行動代案을 豫測하면서 自己의 行動代案을 決定하고 이 過程을 反復하여 實施하는 것을 말한다.

이 方法은 企業의 경우에 競爭会社와의 關係에서 行政의 경우에서 軍事作戰의 樹立과 外交政策等の 樹立等に 活用되어 왔다.

Game의 理論은 Two-Person Zero-Sum Game에 關하여 가장 많이 發達되어 있고 三人以上이 關聯된 Game으로서 Non-Zero Sum Game의 경우에는 그 理論의 有用성이 疑心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協商委員의 訓練用途를 想定하는 限 그 어느 경우에나 Game의 思考方式은 매우 有用하다고 생각한다.

前述한 Role Playing이 한 組織(例. 한 國家의 代表團) 내부의 問題를 對象으로 하는데 對하여 Game은 언제나 서로 對等하게 맞서는 兩側을 前提한다는 點에서 다르다.

對北 協商委員의 訓練에 있어서도 「잇슈」中心으로 南北韓의 利害關係를 찾아 내고 北韓側이 提示할 可能한 代策과 그 提示順序를 豫想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各段階別 我側代策을 提示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매우 有益하다고 생각 한다.

10. 役割行使+게임方法

協商의 狀況을 Full-Scale로 그대로 再現 시키면서, 그 속에서 被訓練者로 하여금 가장 迅速하고 效果的으로 習得하게 하고 그것도 知識뿐만 아니라 態度, 思考方式等까지 배울수 있게 하는 方法은 바로 이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前述한 役割行使와 게임方法의 兩者를 合한 型態의 것으로서 兩者의 長點을 다 살린 方法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本報告書는 이 方法을 強力하게 勸告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방법을 導入하는 경우의 訓練方法은 다음과 같이 構想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側의 代表團은 주로 歸順者 對北 協商經驗者 등으로 構成한다. 南韓側의 代表團은 協商要員들로 構成한다.

兩 代表團을 대치시키고 그間에 「잇슈」中心으로 「게임」方法을 適用한다. 이方法에 의하여 各代表團이 自己側의 損益計算을 하고 態度表明을 하기 까지의 過程은 役割行使의 方法을 適用한다.

이 方法은 簡單히 表現하면 協商의 實際를 Full-Scale로 再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현실감각이 그만큼 增加되고 매우 動態적인 過程을 통하여 習得이 이루어질수 있는 長點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方法의 導入을 위해서는 게임의 方法에 關한 限 企業이나 行政의 一般的管理나 販賣, 製造, 人事等 分野別의 게임밖에 그 模型이 없으므로 南北協商의 問題에 이를 直接 適用하기는 困難하고, 새로 創意的으로 이種類의 게임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可能하면 量化 可能한 變數들에 關하여는 이를 「컴퓨터」에 의한 操作을 통하여 解答을 求하는 方式을 導入하는 것을 勸하는 바이다.

11. In-Basket Exercise

In-Basket Exercise는 原來經營에 있어서 最高管理表의 訓練에 使用하는 方法의 하나이다. 이方法은 위의 諸方法과는 달리 被訓練者가 혼자서 行할 수 있다는 點이다.

具體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 即 最高管理者의 하루 勤務時間 中の 狀況을 그대로 造成하면서 그로 하여금 迅速하고 올바른

決心을 하는 能力을 키워주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그리하여 좀더 具體的으로는 最高管理者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 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決載나 指示를 要하는 事項들을 그 輕重을 混合하여 書類化하고 被訓練者는, 이들을 하나 하나 읽어 가면서 指示하고 決載 하는 練習을 하도록 되어 있다.

꼭 같은 「아이디어」는 對北協商要員의 訓練過程에 대해서도 適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方法은 다음과 같다. 協商場所에서 相對側으로 부터 提起되는 各種의 發言들을 「카-드」比하여 整理하여 둔다. 이들 「카-드」는 「잇슈」別로 分類되고, 이러케 分類된 「카-드」等을 놓고 被訓練者가 여기에 대한 反應을 하나 하나 決定하여 나간다.

이 方法은 代表級의 要員뿐만 아니라 補助員이나 記者等의 課程에서의 訓練用으로도 매우 適當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이들이 相對方의 記者와 補助員과 마주했을 때의 對話나 論爭도 크게는 協商의 일환으로서 「카-드」化하여 이에 대한 事前練習을 하여둘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發言「카-드」의 作成에 있어서는 過去 協商의 速記錄과 같은 것을 根據로 할수 있으면 더욱 그 作成이 容易할 뿐만 아니라 當時 我側의 發言 內容과 訓練過程에서 被訓練者가 行한 發言을 相互 比較 檢討하는 方法까지 動員할 수 있는 長點도 發揮할 수 있다.

그리고 對北協商의 經驗者나 歸順者等은 이런 發言「카-드」集의 作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12. Action-maze 方法

이 訓練方法도 迅速한 決心能力과 分析的 思考力을 키워

주는 데 目的이 있는 訓練方法이다.

具體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內容을 갖고 있다. 위의 In-Basket Exercise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被訓練者 혼자서 연습하는 方法을 取한다.

사람은 어떤 問題에 當面하던 그에 대한 反應表示方法은 언제나 몇가지의 代策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중의 어느 代案을 採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代案을 採했기 때문에 따르는 結果가 있으며 이 結果가 問題點으로서 提現되는 경우에 다시 몇가지의 反應代案이 있을 수 있으며 그중의 어느 하나를 採하게 된다.

이런 段階를 繼續하여 反復하여다면 마지막 段階에 가서는 中間段階의 어디에서 어떤 代案을 採했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루-트」가 달라지게 되고, 相異한 「루-트」의 採択은 終局的으로는 相異한 結果에 到達하게 된다.

本訓練方法은 이와 같은 論理에 立脚하고 있으며, 따라서 訓練資料로서의 Action Maze는 위의 論理를 反映하여 마치 어린 아이들의 유희用에 쓰이는 「보물찾기板」과 類似한 形態의 것이 된다.

이方法을 對北協商委員의 訓練에 導入하려면 Action Maze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잇슈」에 關하여 그속의 一線의 問題點을 찾아 내고, 各問題點別로 行動代案을 구상하면서 順序的으로 段階化함으로써 相異한 結果에 到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各 段階別의 行動代案의 構想에 있어서는 北韓側의 行動에 대한 假定을 신중하고 明確하게 세워두어야 한다.

13. 感受性訓練 (Sensitivity Training) 方法

이 방법은 行政이나 經營에 있어서 被訓練者로 하여금 他人의 行動을 해석 理解하고, 自己의 行動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能力의 培養을 위하여 使用된다.

이 방법이 내세우는 基本假定은 組織 또는 集團生活에 있어서 사람들이 위와같은 能力이 向上될수록 組織目的의 効果性도 向上된다는데 있다.

이 방법의 內容은 心理學에 밝은 指導者를 中心으로 被訓練者 全員이 24 時間 共同生活을 하면서, 指導者가 被訓練者 相互間의 交互作用을 增進시킬 수 있는 行動의 指示를 내리고, 그過程에서 間間히 指導者가 各構成員의 行動內容에 대한 專門的인 解釈을 하여 주는 節次를 取한다.

이 방법은 北韓 共產主義者들 그속에서도 그들의 代表團構成人員들의 心理構造와 行動樣式에 대한 知識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매우 有用한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이 訓練方法을 採択한다면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內容의 것이 될것이다.

첫째로 指導者는 心理學者인 同時에 共產主義者들의 性格과 心理構造에 밝아야 한다.

둘째로 歸順者等을 下集團 (Training Group 라 부른다) 속 에 包含시켜야 하며, 이들은 순수히 共產側代表團員과 같이 思考하고 行動하여야 한다.

셋째로 克服하여야 할 難點은 行政이나 經營의 경우에는 比較的 同質的인 構成員을 前提로 하는데 대하여, 對北協商要員의 訓練을 위한 下集團은 共產主義者와 韓國側人員들과 共同生活을

은 學生들을 相對로 하는 訓練方法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講議式方法, 세미나方法, 事例研究法 程度가 이런 政規學位課程에서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以上の 거의 모든 方法은 行政이나 經營에서 成人 現職者들을 對象으로 하여 開發된 方法들이라는 點을 再三 強調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런 意味에서 南北協商 要員의 訓練에 있어서는 가장 參考가 되고 有關係가 높은 訓練方法들이다.

不幸히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行政이나 經營을 막론하고 (一部 軍隊教育을 除外하고는) 以上 各種 成人教育方法들이 하나도 開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諸方法의 導入에 있어서 既存 國內 經驗에 依存할 길이 적으며, 外國의 經驗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以上에서 各方法을 檢討할때에 언제나 對北協商 要員의 訓練을 위하여 使用할 수 있는가를 關心의 焦點으로 하였었다.

그結果 모든 方法이 基本的으로는 對北協商 要員의 養成에 使用될 수 있음을 發見하였다. 그러나 이들 方法을 外國의 것 으로부터 韓國的 狀況에 適應시키고, 또 行政이나 經營上의 訓練用을 對北協商委員의 養成用이라는 特殊 訓練問題에 適應시키기 위해서는 特別한 創意성과 많은 努力과 時間이 必要하리라고 생각한다. 하나 하나의 訓練方法마다 專門人員들이 割當되어서 그開發을 專攻하도록 하는 措置가 必要할 것이다.

그리고 以上에서 우리는 모든 協商 要員의 養成事業에 關하여 이를 一律적으로 論했으나, 實際 導入에 있어서는 訓練對象人員의 性質差에 따라서 各各 그重點이 달라야 할 것이다.

例를 들어 代表級要員 候補들을 위한 正規課程과 補助員課程, 記者課程 等に 있어서 各各의 訓練方法等을 어떻게 組合하여 使用하는가는 스스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正規課程 対象者들에게는 「센티켈」方法이 強調되고 補助課程 에서는 In-Basket Exercise와 感受性訓練等이 더 많은 比重을 갖고 施行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以上の 各種 訓練方法中에서 正規課程의 경우에 採 択해야 基本方針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提示하고자 한다.

即 이들 諸方法中에서 순수한 「게임」方法과 役割行使方法은 使用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순수한 「세미나」方法 (지식 傳達을 위한 세미나)도 그 使用을 勸告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이 많은 読書에 熱中하여 세미나準備를 할 수 있는 年令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 이들의 社会的地位에 비추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實際 使用해야 하는 方法은 강의方法, 事例研究討議方法, 게임+役割行使方法, In-Basket Exercise, 感受性訓練,

Action Maze, 「센티켈」方法等이 될 것이다.

이제 이들이 主課程에서 占해야 하는 比重을 構想하면 大體 的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圖 4-4

	訓 練 方 法	%
1	센티켈方法	25
2	게임+役割行使方法	20
3	In-Basket Exercise	20
4	感受性訓練	10
5	Action Maze	10
6	事例研究	10
7	강 의	5

計 100 %

第六節 教科課程

教科課程 編成에 있어서는 이에 作用하는 原則은 大體的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 課程을 履修시키는데 주어진 總時間數이다. 設或 宿舍訓練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時間上의 制約이 있기 때문에 이 制約內에서 教科課程이 編成되어야 한다.

둘째는 訓練方法間의 配分의 問題이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前節의 末尾에서 各 方法間의 比重을 指示하였었다.

셋째는 被訓練者가 修了當時에 具備하여야 할 資質의 內容이 決定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問題에 關하여는 이미 詳細히 言及하였다.

이와 같은 세가지의 原則 또는 指針이 決定되면 教科目的 數와 名稱, 各 教科目에 配當해야 할 時間數, 各 教科目이 採擇해야 할 訓練方法 등이 導出될 수 있다.

本 研究報告書에서는 위의 첫째 指針인 教育期間 問題는 取級하지 않음으로 自然히 完全한 教科課程表의 作成을 試圖할 수 없다.

다만 主로 知識의 供給을 主目的으로 하며, 그것도 講議方法에 依存할 수 있는 諸教科目名稱의 例示만을 試圖해 볼 뿐이다.

그리하여 南北協商의 理論的 前提로 느낄 수 있는 限界內에서, 또한 요구되는 協商의 資質을 具備하기 위해서 대강 다음의 科目에 對한 기초지식의 수강이 要望된다. 選定의 基準은 共產主義에 關한 知識 못지 않게 우리 体制의 諸長點을 相對方에게 自信있게 주입시키기 爲해서는 民主主義에 對한 올바른 知識이 要望된다는 前提下에서 양쪽 모두에 關한 基礎知識의 習得이 必要하다. 이

밖에도 새로운 訓練方法을 익히는데 必要한 게임理論이나 Simula-
tion 과 같은 테크닉에 關한 基礎原理의 習得도 必要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協商에 作用하는 가장 민감한 分野로 Psycho -
analytic 한 訓練을 爲한 基礎 科目도 必要 할 것이다. 다음은
基礎科目을 例示해 놓은 것이다.

- (1) 民主主義의 理論과 實際
- (2) 共產主義의 理論과 批判
- (3) 韓國政治論
- (4) 韓國史
- (5) 朝鮮共產黨史
- (6) 北韓總覽
- (7) 心理分析
- (8) 國際情勢論
- (9) 게임理論
- (10) 科學的豫測論

第五章 建議

以上 研究의 結果에 立脚하여 우리는 南北協商要員의 養成方案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建議하는 바이다.

1. 南北協商要員의 養成方案에 關한 明確한 政策을 立案하여 關係 機關間의 協議를 거쳐서 이를 確定할 것.

現在 이 問題에 關하여는 政府로서 明確한 一貫되고 體系性이 있는 政策이 없는 것으로 생각 한다. 이런 現象은 그 原因으로서 南北協商의 問題가 關聯變數의 複雜性和 流動性에 의한 支配를 받는 性質이 많기 때문이라고 思料되며, 따라서 이에 對한 理解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닥쳐올 狀況을 類型別로 分類하고, 各類型下에서의 要員養成政策을 事前에 決定하여 놓고, 時期의 到來와 더불어 適宜 選定하여 使用할 수 있게하는 準備作業이 必要하다고 생각 한다. 이는 政策의 不在下에서 犯하기 쉬운 散漫性, 非效果性, 非能率性보다 越等하게 優越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政策은 그 內容으로 大體的으로 本 報告가 內包하고 있는 各 項目을 內包해야 하며, 따라서 「基本前提」 「協商要員의 資質」 「訓練담당機關」 「協商要員과 訓練要員의 選定節次」 「訓練方法」等을 取扱하여야 한다.

2. 訓練담당 專門機關은 統一院의 統一研修院, 外交研究院, CIA 等의 三機關의 協同체가 되어야 하며, 이들間의 調整責任은 統一院에 있어야 한다.

他 關聯機關들은 主로 被訓練者의 需要部署의 資格에 立脚하여

上記 訓練담당機關이作成하는 訓練政策 및 施行計劃의 立案과 執行에 關與할 수 있어야 한다.

統一院에서는 그 長官의 内部補助機關으로서 또는 統一研修院 속에 南北協商要員의 養成問題에 關한 研究 開發(research and development) 部署가 設置되어야 한다. 南北協商要員의 需要部署들과 上記 訓練담당機關들과를 綜合적으로 連結하는 情報體制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制度에 의하여 訓練담당機關들은 恆時 變化하는 訓練需要에 對한 情報投入을 迅速하게 隨時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特히 過去 對共產國家 및 對北韓關係의 協商記錄이 이 情報體制에 投入 蓄積되어 訓練需要의 判斷과 訓練效果의 測定用途에 活用되어야 한다.

3. 對北協商要員의 養成에 있어서 實質적으로 가장 重要한 問題는 訓練內容인데, 이의 協定을 위해서는 本 報告書가 本文속에서 採擇한 導出方法을 使用 할 것을 勸告한다.

이를 다시 要約하면 對共產國家 및 對北韓關係의 協商의 性質을 究明하고, 이로 부터 協商要員이 具備하여야 할 資質들을 導出하고, 이런 資質들을 줄 수 있는 科目과 訓練方法을 導出하는 順序를 擇하는 것을 意味한다.

4. 訓練方法에 있어서는 「전디컬」方法, 게임+役割行使方法,

In-Basket Exercise 等を 가장 重點적으로 使用하고, 다음으로 感受性訓練, Action Maze, 事例研究等を 擇하고, 講議方法은 가장 적게 使用 할 것을 建議한다.

이 判斷은 訓練對象人員이 成人이며, 知的水準이 높으며, 社會的地位도 높다는 것과, 이들과 各 訓練方法의 長短點의 比較에 根

據를 두고 있다.

5. 協商候補要員의 選定節次에 있어서 적어도 關聯機關間에는 서로 양해된 基準에 의하여 合義하여 選定 할 것을 建議한다.

이것은 오늘날 까지 協商要員 選定에 關한 明白한 政策이 缺如되어 있는 事實에 根據하여, 往往히 散漫하고, 偶發的인 지식과 기회에 의하여 要員들이 選定되었다는 判斷에 根據를 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協商候補要員들의 選定에 있어서 새로 開發될 特殊한 性格檢査를 經由 할 것을 建議하는 바이다.

그 理由는 우리가 導出한 協商要員의 資質의 相當한 部分을 個人의 性格構造에 關한 것이며, 成人의 性格은 短期間의 訓練過程을 거쳐서 容易하게 變化할 수 없다는 事實에 있다.

뿐만 아니라, 協商候補要員의 選定에 있어서는 全的으로 一方的의 指名에 依存하는 것보다, 自發的意思想에 의한 合意를 重要한 基準으로 採擇 할 것을 勸告한다.

이는 個人의 協商過程에 있어서의 熟誠과 興味, 積極性 등은 自發的意思想을 감안한 때에만 充分히 發揮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以上 協商候補要員의 選定에 關한 建議는 그대로 訓練에 從事할 訓練要員에 對해서도 適用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의 경우에 特別히 強調되어야 하는 것은 特別히 優越한 誘引體制를 마련함으로써 訓練의 質을 높이도록 하는 措置가 併行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6. 將次 協商要員이 될만한 對象人員과 訓練過程을 成功的으로 이수한 人員들에 對한 Coding System을 開發 운영 할 것을 建

議한다. 이것은 對北協商에 從事 할 低辺人口를 擴大하여 Pool 化하여 貯藏하므로써 有事時에 迅速히 가장 優秀한 人材를 供給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制度의 運營은 統一院이 主管하여야 한다.

7. 過去 對北協商 및 對共產國家協商에 經驗이 있는者와 越南歸順者 等を 對北協商要員養成事業에 있어서 積極的으로 活用 할 것을 建議한다.

이들은 例를 들어 上記 情報體制에의 情報의 供給, 訓練資料의 作成, 訓練要員으로서의 任命 等の 諸側面에 많은 功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8. 成人 教育에 關한 上記 諸方法들은 美·英等에서 開發된 새로운 技法들임으로, 아직 國內에서는 그에 關한 知識이 充分하지 못하므로, 將次 訓練政策과 計劃의 主案에 從事 할 統一院, 外交研究院, CIA 等の 職員을 特別히 이 目的만을 위하여 關係國家에 派遣하여 學習케 할 것을 建議한다.

歸國後에 이들은 訓練政策과 計劃立案外에 各 技法別로 獎次 使用할 訓練資料의 作成에 從事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곳에서 強調하고자 하는 點은 다음과 같은 點이다.

即 所要時間의 側面에서 考慮 할 때에 巨視的인 訓練政策의 立案이다. 協商候補要員, 訓練要員의 選定 等は 相對的으로 많은 時間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訓練담당機關의 設置와 各 機關間의 關係를 確定하는 問題도 마찬가지로 많은 時間을 所要한다고 볼 수 없다.

情報體制의 確立은 比較的 長時間을 要할 것이나, 이것은 關聯

機關間的 構造的 關係가 確定된 以後에 決定될 性質의 問題이다. 가장 長時間을 所要하는 問題는 訓練要員의 養成問題라고 할 수 있다. 特히 其中에서도 새로운 訓練技法을 익숙하게 習得하고, 教育資料를 開發하는 問題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이 問題는 南北協商要員의 養成方案에 關한 確固한 明示的 政策이 確定되기 以前에 執行 할 수 있는 性質의 問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現狀況下에서 時間配列의 優先順位の 決定이라는 立場에서 보면, 統一院의 關係職員을 海外에 派遣하여 새로운 訓練技法을 習得시키는 事業이 最優先的으로 施行되어야 한다고 生覺한다.

13. 感受性訓練 (Sensitivity Training) 方法

이 방법은 行政이나 經營에 있어서 被訓練者로 하여금 他人의 行動을 해석 理解하고, 自己의 行動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能力의 培養을 위하여 使用된다.

이 방법이 내세우는 基本假定은 組織 또는 集團生活에 있어서 사람들이 위와같은 能力이 向上될수록 組織目的의 効果性도 向上된다는데 있다.

이 방법의 內容은 心理學에 밝은 指導者를 中心으로 被訓練者 全員이 24 時間 共同生活을 하면서, 指導者가 被訓練者 相互間의 交互作用을 增進시킬 수 있는 行動의 指示를 내리고, 그過程에서 間間히 指導者가 各構成員의 行動內容에 대한 專門的인 解釋을 하여 주는 節次를 取한다.

이 방법은 北韓 共產主義者들 그속에서도 그들의 代表團構成人員들의 心理構造와 行動樣式에 대한 知識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매우 有用한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이 訓練方法을 採択한다면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內容의 것이 될것이다.

첫째로 指導者는 心理學者인 同時에 共產主義者들의 性格과 心理構造에 밝아야 한다.

둘째로 歸順者等을 下集團 (Training Group 라 부른다) 속 에 包含시켜야 하며, 이들은 순수히 共產側代表團員과 같이 思考하고 行動하여야 한다.

셋째로 克服하여야 할 難點은 行政이나 經營의 경우에는 比較的 同質的인 構成員을 前提로 하는데 대하여, 對北協商要員의 訓練을 위한 下集團은 共產主義者와 韓國側人員들과 共同生活을

시켜야하는 異質的集團이므로 그 指導에 있어서 特別히 어려운 點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指導者의 能力과 事前計劃의 치밀성의 如何에 따라서는 이 難點은 克服 可能한 것이며, 다만 共同生活을 위한 相互接近에 相當한 時間을 所要하리라는 點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北韓代表團員들은 黨의 細密한 指令에 따라서만 움직이며, 또 저들이 取하는 公式이 定型化 되었다는 點에서, 個人으로서의 我團員들의 心理構造의 理解가 큰 意義가 없다는 異論도 提起될 수 있으나, 協商의 具體的 各段階에서 個人으로서의 北韓側 代表團員을 心理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機會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되며, 또한 我側의 協商要員들이 自己의 心理上의 長點과 短點을 事前에 잘 把握하여 이를 協商進行에 反映시키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되므로, 우리는 이 方法의 채택을 強力히 勸告하는 바이다.

14. 「센티켈」方法 (Syndicate Method)

이 方法은 行政이나 經營에 있어서 自己 威信을 極히 無視하는 最高管理層의 사람들에게, 實際的인 問諸에 關하여 訓練하기 위한 用途로 開發된 것이다.

이 方法의 特色은 訓練官은 事前計劃만 치밀하게 꾸미고, 訓練開始以後에 있어서는 訓練官은 순수히 進行 節次上의 問題에 關與하지 그內容에 대해서는 被訓練者들에게 委任한다는 點이다.

이렇게 하는 理由는 被訓練者들로 하여금 스스로 相互接觸에 의하여 習得하는 것이 더 効果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被訓練者들은 10名以內의 小集團을 形成한다. 그리고 그 이

上的 小集團으로 나누어 진다. 各集團員의 構成은 그들의 背景으로 보아 多樣하게 하며, 두 集團은 背景面에서 類似하여야 한다.

두集團이 討論하여야 할 問題는 꼭같은 必要는 없지만, 兩者間에 어느 程度의 競争意識을 造成하여야 한다.

司會者나 書記는 各集團員이 서로 輪번 別로 말으며, 全員이 會議를 이끌고 기록하는 經驗을 갖게 한다.

두小集團의 合同會議에서 各集團의 結論을 報告하며, 이에 대한 質疑 応答의 時間을 갖는다.

以上の 内容으로 보아 이方法은 세미나나 事例研究方法과는 明白히 다르다. 또 우리나라에서 公務員教育 등에서 使用하는 分任研究와도 그人員의 選定, 構成議長, 書記等의 交替面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對北協商要員의 訓練方法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미나」方法보다 이 「센티켈」方法에 더 많은 重點이 주워지기를 바란다.

그理由는 協商候補要員으로서 訓練을 받을 사람들 中에는 많은 社會著名人士가 包含된 것이며 또 이들은 거의 全員이 知的水準이 높고 一家見을 가진 成人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訓練官이 積極介入하여 討論의 内容에 대하여 貢獻하고저 하는 것은 避하고, 이들로 하여금 相互間의 意思傳達過程을 통하여 習得하도록 充實하게 協助者로 機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結 論

以上에서 우리는 各種의 訓練方法에 關하여 考察하였다.

그런데 以上の 各方法은 行政學이나 經營學의 正規課程에서 絶

은 學生들을 相對로 하는 訓練方法이 아니었다. 이것해야 講義式方法, 세미나方法, 事例研究法 程度가 이런 政規學位課程에서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以上の 거의 모든 方法은 行政이나 經營에서 成人 現職者들을 對象으로 하여 開發된 方法들이라는 點을 再三 強調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런 意味에서 南北協商 要員의 訓練에 있어서는 가장 參考가 되고 有閔性이 높은 訓練方法들이다.

不幸히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行政이나 經營을 막론하고 (一部 軍隊教育을 除外하고는) 以上 各種 成人教育方法들이 하나도 開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諸方法의 導入에 있어서 既存 國內 經驗에 依存할 길이 적으며, 外國의 經驗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以上에서 各方法을 檢討할 때에 언제나 對北協商 要員의 訓練을 위하여 使用할 수 있는가를 閔心의 焦點으로 하였었다.

그結果 모든 方法이 基本的으로는 對北協商 要員의 養成에 使用될 수 있음을 發見하였다. 그러나 이들 方法을 外國의 것으로부터 韓國의 狀況에 適應시키고, 또 行政이나 經營上의 訓練用을 對北協商 委員의 養成用이라는 特殊 訓練問題에 適應시키기 위해서는 特別한 創意性和 많은 努力과 時間이 必要하리라고 생각한다. 하나 하나의 訓練方法마다 專門人員들이 割當되어서 그開發을 專攻하도록 하는 措置가 必要할 것이다.

그리고 以上에서 우리는 모든 協商 要員의 養成事業에 關하여 이를 一律적으로 論했으나, 實際 導入에 있어서는 訓練對象人員의 性質差에 따라서 各各 그重點이 달라야 할 것이다.